— 1 —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555 1981년7월2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Thursday, July 2, 1981

한국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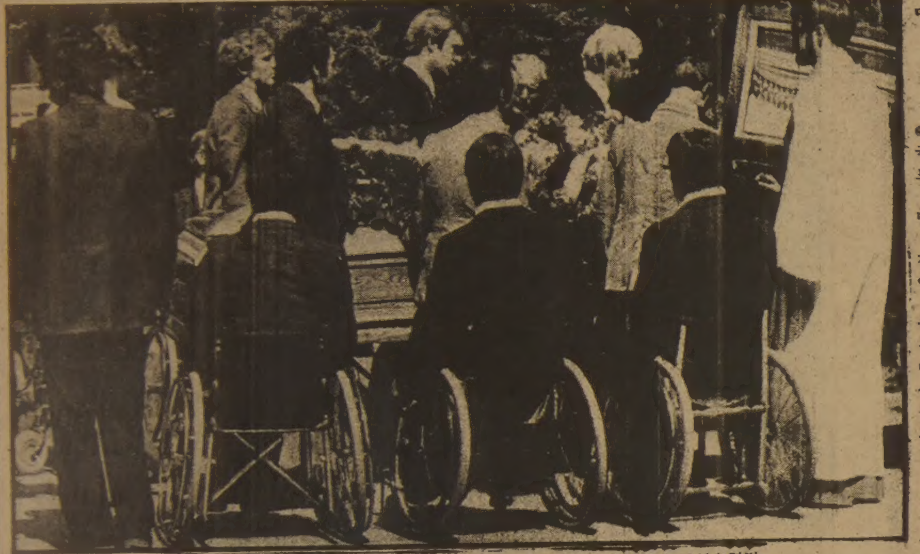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 연 $90, 월 $8.00
SECOND CLASS MAIL NP 918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절망의 순간에도 절망 않은
테리·팍스 영면하다



◇팍스의 관을 따라가는 친구 휠체어 농구선수들—팍스군은 대학시절 농구선수였다.

(포트·코킷트램=BC주) 짧은 인생을 굵게 살다 간 테리·팍스가 캐나다 전국민을 비롯, 온 세계인의 주시 속에 2일 하오 세인트·존스 근처의 평범한 공동묘지에 묻혔다. 햇볕이 따스한 묘지 옆에는 팍스의 부모 로랜드·팍스씨와 그의 부인및 4남매가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했다.

공원묘지 둘레에는 평복의 연방경찰(RCMP)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사진촬영도 금지했다.

장례식은 팍스군이 자라고, 암에 걸렸던 마을의 트리니티·유나이티드교회에서 약 1시간동안 거행됐다.

교회에는 200여명의 초청인사와 전국각주에 흩어져 살던 50여명의 친척들이 모여 조촐히 영결예배를 거행했다.

이날 초청인사 가운데는 B·C주 수상 윌리암·베네트, BC주 총독 헨리·벨네방, 포트·코킷트램시시장조지·래킹등이 있었다.

특히 팍스군의 학교때체육교사이던 로버트·매길씨는 "결코 팍스의 꿈이 사라졌다고 생각치 말라"면서 팍스군은 평소에 꿈은 오직 노력하고 돌보는 사람만이 성취할수 있다고주장했다고 전했다.

추도예배는 매길씨의 "팍스는 우리에게 용기의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우리 누구도 그를 잊을수 있을까?"하는 추도사로 끝을 맺었다.

추도예배후 2명의 정복 연방경찰관은 연방 정부의 선물을 팍스군 부모에게전달했다. 이 선물은 오타와에있는「평화의 탑」을 덮었던 대형 캐나다 국기로서 연방정부가 팍스군의업적을 기리는 뜻에서 줄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다.

한편 2일밤 뱅쿠버등캐나다 전국 각지에서는 수백만 시민들이 팍스를 기리는 촛불행진을 벌였고, 위로의 메시지가 레이건미대통령, 퀸·엘리자베스여왕, 인디라·간디 인도수상등외국으로부터 쏟아져 들어왔다.

◆1일 도미니욘·데이는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이날자 한국일보는 토론토판 없이 발행됐읍니다.

이 문교장관 영국·미국 방문

(서울30일=연합)한국의 이규호문교장관은 영국, 미국 공식방문차 30일오후김포를 떠났다.

이장관은 첫 기착지인런던에서 영국문교장관과 한·영두나라가 교육전반에의 걸친 문제를 토의할 예정이다.

영국방문후 이장관은 미국에서 미문교장관및 교육관계자들과 회담을 갖는다. 이장관은 최근 한국정부가 발표한 유학생 개방정책에따라 양국간의 학생교환문제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장관은 미국서 조지·와싱톤대학을 방문하고 한국유학생들과 토론, 귀국길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제1회 재미교포 체육대회를 참관한다.

모국정부는 최근 유학희망학생이 외국대학서 입학허가서만을 받으면 출국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학국가고시 합격자에게만 출국을 허가했었다.

당장이라도 원자탄 제조
이스라엘 다얀 언명

(텔아비브) 이스라엘은 당장이라도 원자탄을 제조할 수 있으며, 만일 아랍제국이 중동지역에 원자탄을 도입할 경우 이스라엘은 이를 즉시 제조할 것이라고 모세·다얀 전 이스라엘 국방상이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스라엘 인사가 이스라엘의 원자력에 관해 언급한 가장 구체적인 것이며, 베긴 이스라엘수상은 다얀장군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고 측근이 밝혔다.

다얀장군의 발언은 이스라엘이 지난6월7일 이락의 원자로를 폭파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중동지역의 핵논쟁을 재연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편파업 계속
타협점 모색에 난점

우편노조원들이 피켓라인이 줄을잇는 가운데 우편파업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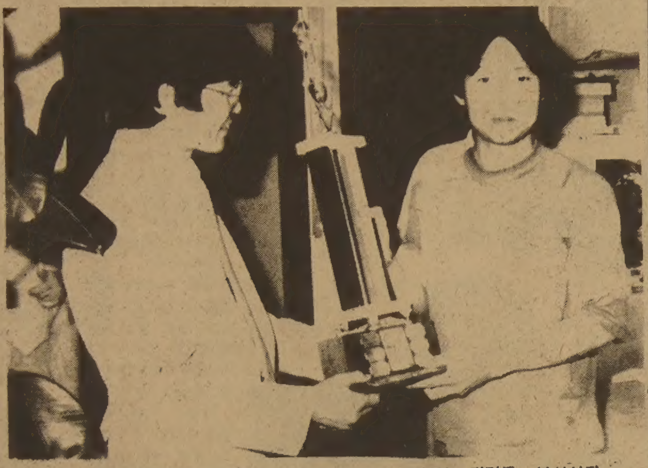
우편노조측의 요구조건을 정부측이 지난 금요일 거절한 후 아직 재협상의 기색은 없다.

우편노조 대변인은 아직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고도 없었다고 1일 밝혔다.

노조측 협상대표는 임산부 17주 휴가와 12번째 공휴일과 4주간 휴가조건들 외에는 협상할수 있다고말했다.

한편 연방정부 협상대표 존 스톤씨는 바로 이 조건들이 협상의 대상이 돼야 한다면서"노조측 요구조건이 액면상으로는 1·8% 의 임금인상인것 같지만 휴가및 생활비등 다른 후생조건들을 고려할때 약 28% 의 임금인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효과!
(416) 533·2361



◇이세주 명인에게 우승배가 수여 되고있다. 시상자는 김명규 본사사장

═명인위 바둑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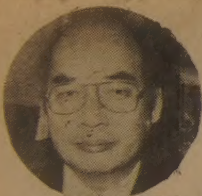
본〈한국일보—토론토〉사제정 제2회 명인위쟁탈바둑대회 시상식이 지난27일 하오7시 토론토 한국기원(대표 김운서)에서 거행됐다.

이날 작년에이어 2연승한 이세주명인에게는「한국일보—토론토」배및 금1봉 이정선 씨에게는 예선 우승배및금1봉이 수여됐다.

이「명인」은 도전 3번기에서 도전자 이정선씨를 2승1패로 눌렀다. (※〈한국일보—토론토〉23일자)

◇명인위 도전자였던 이정선씨(왼쪽)가 장영길씨와 한국기원서 대국하고 있다. 이씨 옆에는 이세주씨

음악카셑 출판기념 음악회
성탄때 메씨아 공연, 연습



◇지휘자 박재훈씨

토론토한인합창단 (지휘 박재훈)은 11일(토)하오8시 성 마태오 연합교회(729 센·클레어 웨스트) 에서 가족음악회를 연다.

이 행사는 지난5월의보스톤 연주여행을 기념하고, 아울러 새로만든 카셋·테잎「한국노래 모음」(한국예술가곡, 민요, 성가등13곡수록, 값 7달러)출판을 기념하기위한 음악잔치이다.

이날 가족음악회 에서는 소프라노 송경란씨의 독창을 곁들인다.

음악회후 다과회가 있으며, 많은 참석을 바라고있다.

동 한인합창단은 오는12월11일(금)토론토시내 메시추에서있을 헨델작곡「메씨아」대연주회를 앞두고, 여름내내 매주금요일 7시 한인연합교회에서 합창연습을 계속한다.

이 메씨아 대연주회는미국 디트로잇 한인연합장로교회성가대 중심으로 조직된 약 100명의 디트로잇연합성가대와 합동공연으로 공연, 12월4일은 토론토에서, 이튿날(12월5일)은 디트로잇에서 연주회를 갖게된다.

두 합창단을합해 약 200~250명으로 구성되는 대합창제에 정상급 독창자들 노스욕심포니의 반주를 곁들이게 되었다한다.

메씨아합창에 뜻 있는이들의 많은 참가를 바라고 있다. (연락전화497-0406)

복합문화주간 행사
스카보로 시빅센터

스카보로 휴맨·서비시스위원회는 6일부터 시작되는 스카보로 멀티·컬처럴·윅(복합문화주간)을 맞아 이날하오 2시 스카보로시빅센터에서 개막기념행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차(Tea)마시기 순서도 있으며 이날밤 9시에는 김용순 무용단이 타운센터에서 한국 고전무용을 보인다.

휴맨·서비시스위원회는 소수민족의 문제점등을상의, 해결해 주기위한 서비스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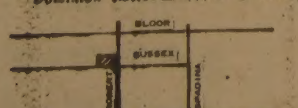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각종보험

백 용 빈
SUNLIFE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B)497-3800
(R)284-9052

여러분의 삼복식품
①물오징어 BOX당 $12.95
②조기(굴비용) BOX당 $55.50
③물미역 BOX당 $44.50
④미역줄기 BOX당 $44.50
⑤당면 BOX당 $120.00
⑥냉면 BOX당 $45.80
⑦이면수 1 lb당 $2.95 (½price)
⑧삼치 1 lb당 $2.25 (½price)
⑨한국산고추가루 lb당 $3.45
⑩한국산 동태 1 lb당 $1.25
743-8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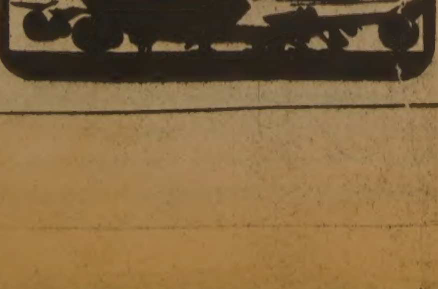
운동구점 개업
여름휴가 특별세일
①GOLF
●Slazenger Golf Shoes Reg. $71(×) 세일가격 $49.00
●Hush Puppies Golf Shoes 세일가격 $36.90
②단체유니폼 마춤
각 동창회및 교회주문 환영
③각종 트로피및 감사패 주문
④ROLLER스케이트
사이즈 : 1 to 5 $39.00
Dominion Roller스케이트 $78.00



VARSITY스포츠점
967-7304 이 건 형

KAWAI KEYBOARD CENTRE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아노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점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카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카나다 통계국 발표〉
■카나다 최고이고, 유일한 한국인 딜러가 교민들에게 특별 할인 판매 합니다.
MARKHAM PLACE MALL
2900 STEELES AVE. EAST. THORNHILL
881-8211
윤 호 섭

제일여행사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 (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 (VANCOUVER 경유)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각종단체 관광요금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방문초청, 이민초청
(재정수속 안내및 작성)
유 지 원
621 BLOOR ST. W.
(B)535-2377
(R)366-0864



오타와대사관 6·25맞아 성대한 행사 가져

(오타와 이태은 지국장) 오타와대사관은 6·25 31주년을 맞아 한국동란 참전용사와 유족을 초청, 일련의 감사표시및 기념행사를 가졌다.

지난 25일 상오9시 이규현 대사는 수도권지역 한국참전 유족대표 마가렛·앤드류 여사등 8명의 유족과 참전용사 간부 오머·레벡씨등 12명에게 참전기념메달과 소형 에밀레종(동판 모형)을 전했다.

이대사 일행은 이날 오후 경찰차의 안내를 받으며 오타와 교외 가티너시에 도착, 한국참전기념비에 헌화했다. 헌화식 에서는 정대위목사가 기도, 참전용사였던 에드·보이씨가 영국 고유악기 백·파이퍼를 연주했다. 가티너 시장과 터기군으로 참전, 대장 예편 후 오타와 주재 터키대사로 있는 투갓·서낼프씨도 합석, 이채를 띄웠다.

이날밤 참전용사 부부, 유족, 내빈등 500여명은 하오7시부터 자정까지 퍼·시즌호텔의 리셉션에 초대되어 30년전 참전의 추억담등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영화 「자유수호의 군」, 「밝아오는 나라」의 두편 영화를 감상했다.

기념행사는 무관 허두기대령이 진행을 맡았고 오타와 TV(CJOH)도 2분간 뉴스중계했다.

저녁 행사에는 그리스대사관의 크리스·티스코 공보관과 각국의 무관 20여명, 몬트리얼교포 백기준예비역대령, 6·25에 종군한 2명의 종군기자 윌리엄·울슨, 데이브·매킨토쉬씨도 참석했다. 울슨씨 는 캐나디안 병사와 같이 제일 먼저 한국땅을 밟은 사진기자였고, 매킨토쉬씨는 캐나다통신(CP) 특파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동란에 종군했다. 그리스 공보관은 한국동지에서 모두 7개의 훈장을 탄 직업군인이었다.

참전용사는 아니나 연방외무성 무관으로 한국동란때의 전사자 기념행사 담당 프레데릭·재킨 중령도 이날 모임에 동석했다.

캘거리 이주붐 계속 매일 90명씩 증가

(캘거리)캘거리의 인구증가붐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국에 따르면 캘거리의 인구는 현재 591,857명으로 지난 12개월간 5·6%가 증가한 31,239명이 되었다.

지난해 4월현재의 인구는 560,618명이었다. 5·6%의 증가율은 79년도, 80년도와 비슷하다.

캘거리시의 인구는 한달평균 2,600명, 매주 650명, 매일 90명, 매시간 4명씩 늘어난 셈이다. 한달평균 인구증가중 2,035명이 타주에서 이주해온 숫자이고, 56명은 출산으로인한 증가이다.

한·가 섬유회담 섬유쿼터등 협의

(서울29일=연합)29일부터 일주일간 열린 한국·캐나다 섬유회담에서 양국은 캐나다의 한국섬유류에대한 수입쿼터 문제와금년말로 끝나는 양국 섬유협정을 재검토 했다.

한국어 직접교습 토론토 교육위서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여름방학을 맞아 헤리티지·랭기쥐 프로그램에 의한한국어 교습을 지난29일부터 테·머리치국교(115 Winona Dr)및 존·완레스 국교(250 Brookdale Av)에서 하고있다. 7월말까지계속되는 이 강좌의 시간은 주5일 하오1~3시, 수강료는 없다.

교포들이 운영하는 기존한글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친다.

<건강생활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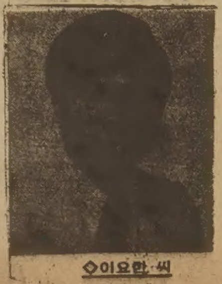
건강의 비결 ③

혼잎약국 이 요 한

2. 스트레스(Stress) 는 얼마나 몸에 해로운가?

스트레스— 일상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고,모든 경우 피할 수 없으며 흔히 직장이나 직업에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는 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스트레스와 살며 불필요한 것을 없애느냐는간단한 것이 아니고,인생 사는 방법이 문제가 될 터이니 각자 생각해 볼 문제이다.

다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수명이 짧다는 사실이다. 고소득층이 보다 높은 사망률을 가진 사실은 정신노동이 육체노동보다 인간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결과가 된다.


◇이요한 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 증상을 느낄 수 있다. 즉 스트레스가 오면 ①목이 탄다. ②집중할 수 없다. ③피곤을 느낀다. ④불안하다. ⑤잘 놀란다. ⑥불면증이 있게 된다. ⑦땀이난다. ⑧오줌이 자주 마렵다. ⑨담배를 더 피우고, 커피를 자주 마신다. ⑩식욕이 준다. ⑪경쟁의식에 대해 압박감을 느낀다. ⑫직업과 관련된 지식을 알기 위해 신경을 쓴다.

스트레스가 우리 건강에 해롭다는 또 다른 증거는 남성의 평균 수명이 여성의 평균 수명보다 짧다는 사실이다. 가장(家長)으로서 한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는 우두머리된 자가 항상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하는가 보다.

여성자유화운동에 이어 많은 여성이 사회에 나와 남성을 젖혀놓고 남성들의 직업을 빼앗아가고 있으니, 멀지 않아 평균수명이 평등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남녀평등의 시대가 왔으니 말이다.

3. 흡연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

담배애용이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가를 흡연가가 반이라도 안다면 담배 피우는 것을 끊을 것이다. 경제적인 면의 손실은 그만두더라도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이다.

담배 피우는 멋(맛) 을 모르고 인생을 산다면 인생의 반은 헛산 것이라고 흡연가는 답변하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여 이 기회에 결단을 낼 일이다.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느라고 각종 건물안이나 밖에서나 깨끗한 공기도 못 마시고, 거기다 독개스나 다름없는 담배연기를 들이마신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학대나 다름 없다.

이제 큰 건물에는 에어·컨디션이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건물주인이 그 관리를 잘 하는지? 얼마나 자주 필터를 가는지? 각종 먼지를 어떻게 제거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자기몸의 건강을 원한다면, 자기몸의 생명의 단축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흡연은 끊어야 한다.

북미에서 가장많은 병으로 죽는 심장마비, 뇌일혈, 암이 70%를 차지하는데, 흡연은 이3질병의 한원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제까지 나온 통계를보면, 하루 한갑씩 담배피우는 사람은 안피우는 사람보다 8배나 많이 폐암에 걸리며, 2갑씩 피우는사람은 18배나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다른 통계를보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35-55세에 죽을확률이 안피우는 사람의 4배, 심장마비로 죽을확률은 70%가 높다는 것이다.

흡연이 사람의 건강에해롭다는 경고문이 나온후에도 담배의 소비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흡연은 심장마비와 폐암의 한 원인이되는 이외에도 동맥경화, 임신부의 태아사망등 많은 이유로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흡연이 이렇게 인체에해로운데 왜 정부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금연운동을 하지않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담배는 많은나라의 전매사업이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때문이다.

1977년 캐나다는 13억원을 담배에서 벌어들였다.

매년 북미에서는 3억원의 광고비를 투자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간접살인행위를 하고있는 것이다. 흡연가는 자기몸을 희생해서까지 국가의 재정을 돕는 숨은 애국자이다.

담배를 오래 피우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습관성이 발생하는데, 만약의 경우 담배를 끊기가 힘들면 가까운 의사를만나 상의해봄이 좋다. 금연(No Smoking)에 도움이되는약품이 나와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이며, 이것은 결단력이 약한 민족이나 사용하는 것이지, 배의민족이 사용할 방법은 못된다는것을 말하고 싶다. (계속)

<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㉓

[illegible]·모왓 원작, [illegible]

앙그레알락의 이글루에는 온식구가 털로된 이불속을 파고들어가서 모두잠에빠져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기를 기다리는수밖에 없었다. 낮에는 눈속에파묻힌집에 희미한 빛이나마 있었지만 밤에는 조그마한 초롱에 태울 사슴의 기름도 다 떨어져 버려서 빛이라곤 전혀 없었다. 바람은 악마처럼 끈질기게 눈벽에와서 부쉬지며, 소리를 냈다. 그러나 안에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소리마저 듣지 못하고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다. 개들도 전혀 움직이지않고, 지의얼어붙은 코는 꼬리끝에 파묻고 몸을잔뜩 오그리고누워서 가사상태에있는 인간들처럼 깨지못할 잠에빠져있었다.

식구들이 뇌조 두마리를 먹었는데 아이들은 그런대로 자기의몫을 먹었지만앙그레알락은 조금밖에 먹지못했다. 내장과 털은 개들이 먹어치웠고, 익룩만이아무것도 먹지않았다. 남편은 그의조그만 몫이라도먹이려고 해봤지만 기침과피를 토하면서 돌아서선 먹지않았다.

늙은여인이 죽은 일주일후에 익룩은 기침을하는것외엔 더이상 움직일수가없었다. 이때쯤 앙그레알락은 몇백피트밖에 안되는오텍의 이글루를 찾아갔다. 그러나 그치지않고 불어오는 바람과 눈보라가 안개처럼 짙어서 찾아가는데여간고생을 하지않았다.오텍의 이글루에는 그와 그의 젊은아내, 하우믹, 그리고 아직 젖을떼지않은 어린애가 살고있었다.

오텍은 12일동안 아무것도 못먹은 채였다. 그리고 낡고 찢어진 오래된 가죽을 한줌밖에 안되는 버드나무가지에 대려먹은것 이 고작이었다. 이아이는 오텍의 세번째 아이이다. 첫애는 일년을 넘기지 못했다. 굶주림이 두번째아이를 죽였고, 이제 오텍은사냥할수 있는사람이 우선권을 갖는다는법을 무시해버려야 할때가 온것을 알았다. 앙그레알락과 오텍은서로 작은소리로 이야기하고궁리를 했으며, 오랫동안의 의논중에 무엇을 해야될 것인가를 결정했다. 그들은 프란즈가 멀리 떠나서 한달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것을 알았다. 그때는 너무늦은 것이다. 오텍은 어느 백인이 해변에사는 에스키모들이 겨울에는 바다로부터 떨어진 내륙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이들과 교역을 하기위해서 약 열흘동안의여행이면 닿을수 있는곳에새로운 교역소를 세웠다는것을 듣고있었다.

오텍에게는 리틀힐스를 버리고 동쪽으로가면 죽음을 피할수있을 것같이 생각이 들었지만 앙그레알락은 그의 제안에 따를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익룩은 이제 전혀 걸을수없고, 또 개들도 지쳐서 썰매를끌수가 없는것을 알기때문에오텍을 따라갈수 없었다. 일주일이 지난후에도 오텍의 호수주변에 4개의 이글루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중 오직 한 이글루에만 사람이 남아있었다. 3개의 이글루에살던 사람들은 떠나가는 행렬뒤에 이미 멸망의 그림자가 명백했지만 살아보기위한 비참하고 저의 가망이없는 죽음을 피하려고 동쪽으로 떠난뒤였다 남아있는 이글루에 익룩은 긴장에서 갑자기 깨었다. 그리고 그 여자가꿈에본 공포때문에 소리를지르려고안간힘을 쓰다 피가목구멍을 막는바람에 소리를 지를수가 없었다.

다른사람들은 옆에서 아직도 잠에떨어져 있어서꼼짝도 하지않는다. 오직 익룩만은 그여자를 데리러온염라대왕을 어슴프레 보고있었다. 죽음을 피하여 몸부림 치더니 잠시동안 막힌숨과 심한발작을 여러하는듯 했다. 그리고는헐떡이는 입에서 짙은 핏덩이가 침상끝으로 흘러내려 땅바닥에 떨어지나 곧 얼어붙었다. (계속)

화랑태권도학교

서 정 길(7단)

- 전 한양대 태권도 대표선수
- 전 공군첩보요원 지도사범
- 현 송무관 중앙도장수석사범
- 전직 대통령경호실 경호관, 경호요원 지도사범
- 현 카나다태권도협회 이사, 한인태권도협회 부회장

<초대의 말씀>

금번 저희 화랑태권도장을 개관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교민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일시 : 7월10일(금) 오후8시
장소 : 화랑태권도장(676 Sheppard Av.W.)
(one block west of Bathurst)
사범 서 정 길
☎ : 630-3095

676 SHEPPARD AVE. W. (1 BLOCK W. OF BATHURST)

City of Toronto

전기위원회 위원 공모

시의회는 토론토 전기위원회에 1명의 위원을 임명하여야 합니다.

새 위원은 전기행정을 책임 맡습니다.

희망자는 경력을 요약한 신청서를 1981년 7월3일까지 시청2층 총무과 (시티·클럭)에 제출하십시요.

the City Clerk, Second Floor, City Hall, Toronto M5H 2N2

문의처 : 367-7031

A.R.N. Woadden
Deputy City Clerk.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이란 執權黨首등 64명沒死

黨政協議중 연쇄爆發사고

執權黨본부서 長次官10·議員18명 포함

【테헤란·베이루트29日AP합동=聯合】 이란 제2의 실권자이며 집권회교공화당(IRP)당수겸 대법원장인 아야톨라·모하마드·베헤슈티(52)를 포함한 64명의 회교혁명지도층인사들이 28일밤(현지시간) IRP당본부에서 발생한 강력한 폭발사고로 인해 몰사했다고 이란국영방송이 29일 보도했다. 사망자 중에는 모하마드·알리·파나시바크시후생상(44), 무사·카란타리 교통상(33), 마하모드·카디 체신상(37), 하산·아바스포르 에너지상(37)등 장관4명과 차관6명, 이란의회(마즐리스)의원 18명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3면

호메이니·라자이首相 禍모면

石造건물 完破…대부분 천장에 깔려

이날 週정기黨政협의회에는 라자이수상, 라프산자니의회의장등 90여명의 IRP의원과 정부각료들이 참석했는데 베헤슈티 당수가 연설하던중 의장석옆 쓰레기통에장치된것으로 보이는 여러개의 폭발물이 연쇄적으로터졌다. 그 폭음은 사고지점에서 5㎞ 떨어진곳에서도 들을수있을만큼 강력한것이었다. 이란혁명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은 이협의회에 참석하지않아 화를면했고 사고현장에 있었던 라자이수상과 라프산자니의장도 사고직전에 우연히 자리를빠져나와 무사한것으로 보도 되었다.

이사고로 IRP당본부 석조건물은 완전 파괴되었으며 사망자들은 대부분 무너져내린 대리석 천장에 깔려 회생됐다.

현이란 집권층의 중추세력을 제거해버린 이폭발사건에 대해 이란의 어느 세력도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고 나서지 않고있어 폭발사건의 배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편 IRP의 기관지 이슬람공화국紙는 이 폭발사건이 『미제국주의자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바니사드르 前대통령 축출이후 強穩양파간의 권력투쟁이 폭력사태로 번지고있는 이란에서는 이보다 앞서 27일 테헤란의 한사원에서 호메이니옹의 측근이며 최고회의지도자 3명중 한사람인 호자톨레슬람·알리·하메네이가 설교도중 시한폭탄에맞아 중상을 입었고 테헤란시내 곳곳에서 연쇄폭파사건이 일어나는등 불안이 고조되고있다.

◇베헤슈티大法院長

中共黨主席 華國鋒해임

黨職개편 곧重大발표 후임 胡耀邦확실

【北京29日外信=聯合】 중공당은 29일 밤8시(한국시간 밤9시) 黨주석 華國鋒(60)의 해임을 포함 최고위 당직개편을 밝히고 창당60년에 즈음한 새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는 중대성명을 발표한다고 중공관리들이 말했다.

黨中央委는 1949년 中共정부수립이래 최초로 단행되는 黨주석의 해임에대한 승인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中共반관영언론들은 華가 부주석으로 강등되고 黨주석직에는 鄧小平의 측근인 黨총서기 胡耀邦(66)이 승진될것이며 작년9월이래 수상직을 맡아온 趙紫陽이 부주석에 임명된다고 말했다.

華가 부주석직을 수락했는지의여부는 최종순간까지 확인되지않고있어 그의 부주석직은 공석으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

中央委는 또 黨의 日常업무를 관장하는 書記處를 확대개편하며 1949년이래 中共黨통치실적에 관한 보고서도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또 毛에관한 평가도 포함될 예정인데 이는 주로 긍정적인 평가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오늘 韓·말聯首腦회담

全대통령, 콸라룸푸르 到着

◇말聯도착 全斗煥 대통령 내외가 29일하오 콸라룸푸르 수방공항에 도착, 출영객들과 악수를 나누고있다. 全대통령뒤에 후세인·온 말레이지아 수상이 보인다. 【TV촬영】

【콸라룸푸르29日=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은 3泊4일의 인도네시아 公式방문을 마치고 29일하오 3시50분(한국시간 이하같음) 印尼의 휴양지 발리州로부터 이번 아세안巡訪의 두번째 방문국인 말레이지아에 도착, 콸라룸푸르 공항에서 후세인·온 말레이지아 首相부처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한·말聯友好재확인期待 到着성명

全대통령은 도착직후 성명을 통해 『이번 방문이 韓·말레이지아양국간의 友好·協力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이를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될것을 기대한다』고 방문소감을 밝히고 『우리한국국민은 말레이지아정부와 국민이 그간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주고 아낌없는 협력으로 우리의 국가발전노력에 성원을 보내준데 대해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어 국회의사당광장에서 베풀어진 공식 환영행사에 참석한뒤 이날하오 王宮으로 아부·바카르 말레이지아國王부처를 예방, 환담했으며 숙소인 영빈관에서 후세인·온首相과 만나 王宮에서 國王이 베푼 만찬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30일 1시간30분간에 걸쳐 양국首腦회담을 가질예정인데 이자리에서 韓·말레이지아간의 경제·기술협력을 비롯한 양국간의 實務문제와 한반도와 東南亞의 정세, 특히 한반도의 平和정착을 위한 1·12및 6·5提議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首腦회담의 내용은 全대통령이 7월1일 싱가포르로 떠나기직전 공동성명을 통해 發表될것으로 보인다.

全대통령은 말레이지아방문에 앞서 하오1시 인도네시아의 엔구라·라이 국제공항을 출발, 발리州知事의 전송을받았으며 인도네시아출발성명을 통해 『印尼 정부및 양국국민간의 신뢰와 우정,

全大統領 아세안巡訪日程

◇30일 (한국시간)
▲상오=국립 현충탑 헌화
▲〃=首腦회담(首相실)
▲하오=僑民리셉션(힐튼호텔)
▲〃=國王내외, 全대통령 내외에 答禮예방
▲〃=韓國대사 주최 리셉션(힐튼호텔)
▲〃=비공식 만찬(대사官邸)

말레이지아歡迎式

全대통령 일행은 29일 오1시 印尼 발리州의 덴파사를 출발, 2시간 50분간의 비행끝에 이번 巡訪의 제2방문국인 말레이지아 首都콸라룸푸르의 수방국제공항에 安着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날 공항에서 崔浩中 駐말레이지아大使와 말레이지아 儀典長의 機上 영접을 받고 출영나온 후세인·온 首相내외와 첫 인사를 교환했으며 이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베풀어진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했다.

全대통령은 양국가와 21發의 예포가 울리는 가운데 아부·바카르 말레이지아國王과함께 말레이지아 의장대를 사열후 이곳3府요인, 외교관, 僑民대표들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이날 수방공항과 환영식장인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과 全대통령의 숙소인 영빈관을 잇는 도로연변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술자·근로자들과 僑民들이 도열, 全대통령의 모터케이드가 통과하는 동안 양국기를 흔들며 故國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했다.

國王예방·首相접견

환영사에 이어 全대통령내외는 하오6시 王宮으로 바카르國王부처를 예방, 30분간 환담했다.

全대통령내외는 이날 王宮현관에서 바카르國王의 영접을 받은후 芳名錄에 서명했으며 國王과 서로 훈장을 증정했다. 國王예방에 이어 全대통령내외는 숙소인 영빈관을 예방한 후세인·온首相부처를 접견후 환담했다.

極東 有事時의 美·日 對處방안

韓美日 공동作戰도 포함

美·日국방장관 會談때 擧論

【東京29日=聯合】 극동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美日양국간의 공동대처방안연구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경우 美軍을 지원하는 문제뿐아니라 전쟁이 일본으로 비화하는 경우까지를 가상, 韓·美·日 3國간의 광범위한 공동작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과 도오쿄(東京)신문이 28일 방위청을 인용,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29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와인버거-오오무라(大村)美日국방장관회의는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이 발생했을 때를 가상, 초기단계에 있어서의 美日 정보교환, 공동경계행동, 무력공격이 있을경우 이로부터 주일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日本이 직접 침공을 받는 국면에도 대처하기위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이 신문들은 보도했다.

駐韓 美大使에 워커氏 任命

【로스앤젤레스29日外信=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27일 아시아문제전문가인 사우드캐롤라이나대학의 리처드·워커교수(58)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워커교수는 美상원의 인준을 받은후 사임한 윌리엄·글라이스틴대사의 후임으로 서울에 부임하게된다.

현재 사우드캐롤라이나대학의 국제정치학교수로 봉직하고있는 워커교수는 57년부터 72년까지 이 대학의 국제정치학과장을 역임했고 50년부터 57년까지 예일대학에서 역사학을 강의하기도 했다.

타피올라合唱團 초청공연
7월8일 저녁7시半 世宗文化會館 대강당

世界대회 4連霸「技能한국」선수단 凱旋

◇국제기능올림픽에서 4연패를 차지하고 개선한 우리선수들。10대의 오픈카에 나눠탄 일행이 西小門에 이르자 시민들은 5색꽃가루를 뿌리며 열렬히 환영했다. ★기사11면

社會漫評

"우리할일은 다했고…" 아니

地平線

경상도에서 땅이 탄다고 법석이된것은 4백년이 채 못되는 4백98년전의 일이다。 成宗임금은 『내가 정치를 잘못한 때문이 아니냐』고 걱정했다。 『타다남은 돌멩이를 불에 넣어보니 타기는해도 불꽃이 없다』고 해서 『중국에서 쓰는 석탄은 아니다』고 왕조실록은 기록하고 있다。 석탄말고도 무연탄이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다。 그로부터 5백년만에 우리는 LNG라는 땔감을 곧 쓰게된다。

▼LNG란 『액화 천연가스』의 영어 머리글자를 딴것이다。 땅에서 솟아오르는 천연가스를 영하 1백62도(섭씨)까스지 식혀 물로만든게 LNG다。 에너지 자원이라곤 주먹만한 무연탄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LNG도 수입에너지다。 작년의 경우 천연가스는 전세계 에너지수요의 약 5분의 1을 차지했다。이중에서 13%만이 국제시장에서 팔려나갔다。 대부분은 생산된나라에서 소비됐다는얘기가된다。

▼천연가스를 제일많이 수출한 나라는 80년에는 인도네시아였다。 그다음이 브루네이와 알제리의 차례다。 인도네시아의 수출량은 재작년보다 32%나 늘어난 8백30만톤으로 23억달러를 벌어들였다。 그래서 LNG는 인도네시아 최대의 달러·박스가 됐다。 2위는 기름이고, 3위는 16억달러를 벌어들인 原木이다。 그러나 세계전체로 보자면 LNG교역량은 79년보다 7%나 떨어졌다。 알제리가 미국과 흥정을 붙이느라고 수출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LNG는 공해가 없는 깨끗한 땔감으로 차츰 수요가 늘어나고있다。 영국에서는 가정이나 빌딩의 난방에, 서독과 일본에서는 발전소에 쓰이고있다。 아직은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세계 LNG 시장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지만, 90년엔 석유수출국기구(오페크)회원국들이 3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짐작되고있다。그러나 LNG는 기름과 달라 수출국의 일방적인 횡포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특징이있다。

▼천연가스는 땅에서 퍼내고, 액화시켜, 저장하고, 소비자에게 실어나르는데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다。수입하는 쪽에서도 수송비와, 그것을 다시 액화하는데 큰 돈이 든다。 우리의 경우 30억달러라는 엄청난 시설투자가 계획되고 있다。 그러니까 LNG는 양복 마추듯 단골끼리 15~20년에 걸치는 계약으로 사고파는 수밖에 없다。 인도네시아가 못팔겠다면 우리가 곤란하지만, 우리가 안사주겠다면 인도네시아도 골탕먹게 된다。 작년도 인도네시아의 수출이 모두 일본에 나간것도 이때문이다。 값도 이제는 기름과 맞먹는 선까지 올랐다。 예정을 앞당겨 84년6월부터 인도네시아에서 들여올 LNG에 기대와 불안이 따르는 이유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 당
은 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10
은 : 온스당 US 8.31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번역·통역
CHARLES YU(유화석)
10 Sunrise Ave. Unit 203
Tor. M4A 2R1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 : 759—9505(5시이후)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온타리오주 면허소유
함 병 섭 M.C.I.C.R.M.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 : 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F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VISA 또는 MASTER CHARGE는 CASH이상 환영

IATA
월부적금제 실시
(푼돈 모아 목돈으로 여행 가능)
●서울단체 매일출발 CPA, KAL JAL
여름철은 붐비니 미리왕복예약하십시오.
●이민및 방문초청상담, 초청장 작성
●동남아 각처 단체요금
●월부및 각종 크레딧 카드취급
●저렴한 국내선 SKYBUS및 SEAT SALE
※ 모국방문산업시찰단모집 : 9월27일 출발
(3박4일 산업시찰 포함)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IL4
김창범 536-2155·2156 (R) 429-7580

개업
꽃 집
Jane Park Garden
*특별세일
*생화, 조화, Plants, Gifts, 꽃바구니, 화병등 꽃에 관한 모든물품 대량구비.
*모든 축하 꽃꽂이나,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각처 주문 배달.
Eglinton W. Jane St. Alliance St. Clair W.
Jane Park Plaza
875 Jane St.
Toronto, Ont.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수라장된 이란IRP本部 폭탄사건現場

爆音 수차례…官公署는 半旗

【테헤란29日AP聯=聯合】베헤슈티를 비롯한 64명의 이란집권층을 몰살한 집권 회교공화당사 폭발사건의 목격자들은 폭발이 28일밤 9시(한국시간 29일새벽 2시30분) 일어났으며 수차례에 걸쳐 폭음이 계속되었다고 말했다。

사건직후 회교보안군들은 테헤란市 중심가에 있는 IRP당사주변을 완전차단했으며 긴급구호차량외에 모든 통행을 금지시켰다。

【앙카라29日UPI=聯合】나바비관방상의 한보좌관은 앙카라에서 연결한 UPI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라자이 수상과 나바비 관방상은 폭탄이 터지기 수분전 IRP회의실을 떠났기 때문에 부상을 면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르스통신은 폭발사고로『건물의 거대한 쇠기둥들이 꼬였으며 현장을 불도저들이 정돈하고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베이루트29日AP聯=聯合】이란국영방송은 사건보도후 모든 정규프로를 중단하고 64명의 사망자를 계속 애도하는 코란구절만을 방송했다。

일주일간의 애도기간이 선포된 이란전역의 모든관청건물은 반기를 게양했으며 30·7월1일 양일간은 모든공무를 하지않기로했다。

「日曜日의 大虐殺」 犯人의 正體는…

사드르聲明과同時 쓰레기통서爆發

左翼·쿠르드族등 聯合한듯

이란의 회교성직자 지배를 가능케한 이슬람헌법의 기초자이며 호메이니에 이어 이란의 제2인자로 지위가굳어진 베헤슈티에게 죽음을 안겨준 폭탄의 정체는 무엇인가。

지난 28일 일요일、IRP(회교공화당) 본부에서 터진 폭탄은 골수회교세력의 대학살을 노렸다。

호메이니를 제외한 이란의 집권회교세력의 골수 90여명이 이날의 국가기밀회의에 참석、베헤슈티의연설을 듣고 있던중 연단부근 쓰레기통에서 폭탄이 터지고 천정이 무너져내려 머리를 덮쳤다。

회교세력과의 一戰에서 패배、모욕을 갖은 바니·사드르의 반격이 시작된것인가。

까마귀날자 배떨어지는 格인지、골수회교세력의 대학살을 노린 폭탄사고는 反정부투쟁에 나서라는 바니·사드르의 對이란국민 성명과 거의동시에 일어났다。

사건직후 라자이수상은『국민에게 냉정하라』고 요구하면서『이번사고는 反혁명세력이 저지른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의 진상은 아직 조사중이다。그러나 라자이수상의 성명으로 미루어 본다면 反혁명세력이 저지른 이번 사건이 역시 反혁명의 낙인이 찍혀 축출된 바니·사드르와 깊은관련이있는것으로몰아나가는듯하다。

이란의 분위기는 더많은 피를 부르고 있다。反혁명숙청선풍이 또한번 몰아칠 공산이 클것이다。

바니·사드르와 관련된 反혁명、바니·사드르지데모、역시 같은 類의 충격、폭탄투척사건으로 바니·사드르가 축출된 이후 18일동안 62명의 인사들이 적절한 재판절차가 생략된채 처형되었다。

팔레비정권이 무너진때로부터 따진다면 불과 28개월동안 1천6백여명 (국제사면위발표)이 이란 회교神政의 희생물이 됐다。

회교성직세력의 피의 숙청으로벼랑에 서게된 좌익 및 민족주의 세력들은 지하로 숨어 도시게릴라활동을 시작했다고 정통한 소식통들은 전한다。

바니·사드르가 축출된후 이란의주요도시에서 고조된 폭탄공격、폭동들이 바로 도시게릴라활동이라는것이다。

도시게릴라로 변신했다는 추측을 불러 일으킨 이란의 좌파및 민족세력들은 현 회교성직세력의 反팔레비운동에 一助가 됐었다。그러나 회교 혁명의 성공후 그들은 소외되었다。호메이니망명시절、그의 측근으로 이란회교공화국의 대통령이 된 바니·사드르가 좌파및 민족세력들과 손을 잡았다는 단정은 없다。바니·사드르가 골수 회교세력의 질시를 받고 쫓기는 처지였지만 그는 역시 회교성직 그룹에 속한인물이다。

바니·사드르는 좌·사랑의 대상이었는가、어쨌든 이란의 좌익단체와 민족주의세력들은 동병상린의 바니·사드르를 싸고도는것같다。

對이라크戰이 터지고 이란軍총사령관이되어 상당한세력기반을 軍部內에만들어놓은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軍隊가 호메이니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당장은 바니·사드르에 등을 보였다。

이같은 형편에서 바니·사드르가 쉽사리 발견할수있는 동조세력이라곤 그를 짝사랑하고있는 좌파및 민족세력이다。또한 오래전부터 자치를요구하고 투쟁중인 쿠르드族이 쉽게 손발이되어줄수도 있다。

이같은 사정때문에 좌파및 민족세력、쿠르드族이 일으키는 폭동은 바니·사드르와 관련을맺고있는조직적인 反혁명활동으로 보아지기쉬운 일이다。

【崔相鎬기자】

全대통령巡訪 日서 시샘

主人意識 못버리고

獨占市場 빼앗길까 警戒의눈초리

겉으론 "韓半島안정에기여" 환영

【東京29日=宋李彬특파원】일본은 全斗煥 대통령의아세안 순방을 명분상으로는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한국과 아세안간의 긴밀한 유대강화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정착에 중요하며 한반도의 안정에 기여할것』이라고 공식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스즈키수상이 5월訪美에 앞서 아세안5개국을 순방、엔(円) 보따리를들고 다니면서 자원외교를 전개、동남아시아의 리더임을 내외에 자처했던 그 길을 한국이 되밟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의 협력자로서 신흥공업국으로 발돋움하는 한국이 새로운 리더로 등장함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했다。

전통적으로 동남아의 주인의식이 강한 일본은 한국이 머리를 들고 동남아를 활보하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5大紙는 全대통령의 아세안순방기사를 끊임없이 보도하고있으며 특히 아사히신문은 29일자의 신면에「동남아진출이 눈에 띄는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인도네시아、말레이지아、싱가포르 3국의 현지특파원이 작성한 특집기사를 한페이지에걸쳐 보도하기까지 했다。

아사히신문은 이특집에서『한국은 이제 일본을 따라잡고 수월한 기세로동남아에 진출하고 있다。싱가포르에는 한국제 소형자동차 포니(1천4백㏄)가 등장、잘팔리고 있으며 한국이참여한 항만、도로등 토목공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하고『만일 포니가 동남아를 석권할경우 歐美에서 규제받고 동남아에서 시장을 개척하려는 일본자동차의 수출전략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천연가스(LNG)의 개발과 공급에 합의했으며、상륙부정LST와고속초계정PSK등의對인도네시아 수출상담이 진행되어 동남아의 한국진출은 눈에 띄게 활발하다고 지적 했다。

이밖에도 건설공사의 진출이 79년이래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로、항만、대형교량등의 건설은 모두 한국건설업자들이 많아 준공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한국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얻은 기술의 축적과 싼 임금등의 강점으로 일본은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82년 완성을 목표로 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말레이지아의 빈쓰루澤 항만공사에 한국사람들이 연일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강행하고있는 모습은 일본사람들이 따라갈수 없는 근면성이라고도 지적했다。

한국의 동남아진출 목적은 아세안과의 협력을 통한 평화와 자유우호에 있으며 풍부한 동남아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협력에의한 상호보완관계를 이룩하는데 있다고 일본은 보고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과 무기수출금지로 병기의 수출이 금지되고있는 상황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의 방위를 위해 필요한무기생산을 추진한 결과 높은수준의 방위산업의 기술을 갖고있기 때문에 아세안과의 기술협력은 용이하며 군복을 비롯한 군장비의 수출도 유망하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이처럼 한국의동남아 진출을 우려하고 있으나 한국의 80년도 對아세안 5개국무역량이 26억1천만달러인데 비해 일본의무역량은 13배인 3백42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동남아진출을 경계할것이 아니라 국제분업으로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면서 아세안의 협력자가 되도록 자세를갖춰야 할것같다。

◇폭탄에 重傷입은 하메네이

지난27일 테헤란의 한사원에서 폭탄에 맞아 중상을 입은 이란의 강경파 회교지도자 호자톨레슬람·하메네이의 모습。【테헤란27日UPI電送=聯合】

伊새聯立정부 출범

基民-社會-社民-共和-自由등 5黨

【로마28日UPI=聯合】이탈리아는 28일 2차대전이후 기민당이 수상을 독점해온 전례를깨고 지오바니·스파돌리니 공화당 당수(56)를 수반으로하는 5개당연립정부를 출범시킴으로써 전후의 복잡다단했던 이탈리아정치사에 새로운 章을 열었다。

스파돌리니 신임수상은 이날 기민·사회·사민·공화·자유당등 28人5개당 연립정부를 발족시킴으로써 아르날도·포를라니 前수상정부가 이른바 P2비밀공제조합 스캔들과 관련、붕괴된데 따른 33일간의 정치위기에 종지부를 찍고 전후 41번째의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다。

새연정의 각료중 과반수가 최대정당인 기민당출신들이며 28人각료중 대다수가 유임또는 전임되었기때문에 이탈리아정부의 대내·대외정책에는 당장 커다란 변화가 없을것으로 전망되고있다。

韓國·台灣產신발類 美수입쿼터制 廢棄

【뉴욕29日UPI=聯合】레이건美대통령은 지난4년간 한국및 대만산신발류의 對美수출을 제한해온 수입쿼터制를 폐기할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紙가 29일 보도했다。

이신문은 신발류수입에 따른 미국의 입장은 철강이나 자동차에 비하면 훨씬 그영향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내산업보호및 고용기회등을 이유로 과도한 제한조치를취해왔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카터前행정부가 지난 1977년 의회의 압력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및 대만산신발류수입을 제한하는 이른바『시장질서유지협정』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이협정은 30일까지 更新되지않으면 자동폐기된다고 덧붙였다。

PLO、베긴再選환영

아라파트議長 "아랍에 有利"

【워싱턴·매나마(바레인)28日AP·UPI=聯合】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장 아라파트는 28일 메나힘·베긴 이스라엘수상이 30일 실시되는 總選에서 승리할 경우 아랍세계에『더 유리할것』으로 판단하기때문에 그의 재선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아라파트는 이날 발행된 美시사주간 뉴스위크誌와의 회견에서 베긴수상과 그의경쟁자인 시몬·페레스 노동당후보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는 없으나『베긴은 美國의鐵拳을 그대로 이용하는 강경파인데 비해 페레스 후보는 부드러운 장갑을씌워 그철권을 이용하는 인물』이라고 지적、이같이 밝혔다。

사드르 "解明 기회 달라"

은신처서 메시지發表 "거부하면 秘密공개"

【앙카라27日UPI=聯合】이란의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옹에 의해 해임된 바니·사드르 前이란 대통령은 이란서부의한 은신처에서 발표한 메시지를 통해 이란 회교강경파들을『권좌에서 몰아낼수있는』기록과 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터키의 후리예트紙가 27일 보도했다。

후리예트紙는 이날 테헤란발기사에서 이같이 보도하고 바니·사드르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긴 인쇄물 수천장과 그의육성이 녹음된 테이프가 테헤란및 이란국내에 유포되고 있다고 전했다。

바니·사드르 대통령은 이 메시지에서 이란 회교정부가 ▲이란의 영토와 영해및 영공을 봉쇄하고 ▲국경의 관할권을 혁명수비대에서 군부와 경찰에 이양하고 ▲자신에게 3시간동안의 방송해명기회를 허용한다면 알리·코두시 혁명검찰총장이 요구한 재판에출두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드르 前대통령은 또 이 메시지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여러종류의 국가기밀서류를 가지고 있다면서 호메이니옹이 자신의 제의를 수락하지 않을경우 이 서류와 테이프를 공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사드르는 美첩자 과격파學生 주장

【테헤란28日AP聯=聯合】미국사태를 일으켰던 이란의 회교과격파학생들은 28일 바니·사드르前 대통령이 美중앙정보국(CIA)과 내통한 사실을 입증해주는 비밀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르、스위스潛入說

쿠웨이트紙보도

【쿠웨이트·베른·로마28日AP=聯合】회교강경파에밀려실각한 아볼하산·바니·사드르 前이란대통령은 지난25일스위스로 잠입했다고 쿠웨이트의 알시아사紙가 외교소식통들을 인용 28일보도했다。

이 신문은 바니·사드르 前대통령이 이집트로 오라는초청을 먼저 검토하면서 前이란 왕인 모하메드·팔레비의 아들 레자·팔레비와 손잡으려 했었으나 이집트行을 거부하고 제네바로 가기로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위스의 법무성은 바니·사드르씨에게 스위스입국 비자를 발급한적이없으며 그가 합법적인 절차를거쳐 스위스에 입국했다는 증거도없다고 쿠웨이트紙보도를 부인했다。

◇미스위스콘신 金경숙嬢

밀워키출신의 재미교포 金경숙양이 81년도 미스 위스콘신으로 선정된후 왕관을 쓰고 기뻐하고 있다。【오시코시(위스콘신)AP電送=聯合】

교포 金경숙嬢 미스·위스콘신뽑혀

오는 9월 미스아메리카大會 출전

【오시코시(위스콘신州)28日AP=聯合】서울태생의 在美교포인 金경숙양(18)이 27일 오시코시市에서 개최된 81년도 미스·위스콘신선발대회에서 1등으로 뽑혀 오는 9월의 미스·아메리카선발대회에 나가게됐다。

시카고의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金양은 이날 미스·밀워키로 출전、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스·위스콘신으로 선발된후『다른 참가자들이 모두 뛰어나서 내가 1등으로 선발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메아리

폰팔

편지를 통해서 낯모르는 사람들끼리 사귀게 되는「펜팔」이 고개를 숙이는 듯 하더니 이제「폰팔」이 새로 등장했다는 소식이다。

전화목소리를 통해서 남녀가 사귀게 되는 새로운 메이트의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전화가 현대생활에 있어서 의사전달의 수단으로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은 새삼 말할나위 없는 일이거니와 시간 일기예보등 필요한 생활정보의 전파도 담당하고 있어서 누구나가 요긴하게 생각한다。

뿐만아니라 생명의 전화에 이르러서는 외롭고 괴로운 나머지 자살이라는 마지막 수단까지 생각하는 생의 소외자나 낙오자에대한 마음의 등불이 되고 또 삶에대한 의욕을 불붙게도 되어서 훌륭한 조언자의 구실도 한다。

전화가 가장 잘 보급된 나라의 하나인 미국에 있어서도 전화에 의한 인생상담과 유아상담같은 각종 다이얼상담이있는가 하면 마침내는 전화를 통한 영문법상담까지 등장했다。

그 아니라도 고독한 대중인 현대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지어주는 전화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은 헤아릴수 없는것이지만 지금 서울에서 새로 고개를 들려하는 폰팔은 날이 갈수록 부정적인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어 주목이 된다。

첫째는 폰팔회원서로의 장황한전화통화가 통화체증의 원인이 되어 많은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는 가입신청자가운데 상당부분이 건전한 교제가 아닌 부정한의도로 임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사회악의온상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일부 폰팔관계자 가운데서도 설립목적을 벗어나서 비정상적인 남녀관계의 중개까지 하고 있다는 내부고발이 있었다。

관계당국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확대되기전에 설립기준을 엄격히 하여 엉뚱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종사자들의 자격을 규제하고 이들의 탈선에 대해서는 준엄한 법적제재를 받게하는 처벌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될것으로 생각한다。

인 사이드

"玉碎않고 脫出해 수치"

美亡命생활 구엔·카오·키前월남首相

"祖國탈환 계획있다"

구엔·카오·키의목소리엔 아직도 힘이 남아있다。그는 패망월남의 前수상。『월남이 패망하기 이틀전 공군파일럿들이 주월남미국대사관을 폭격하자고 주장했으나 나는 적극 만류했다』구엔·카오·키는 최근 UPI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때 공군파일럿들은 미국이 자기네를 포기한것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는 미국이 월남의패망과 월남의 공산화를 저지해줄것으로 믿었다고 당시를 회상하고『우리들은 충분한 힘을 가지지못했었다』고말했다。

구엔·카오·키는 옥쇄(玉碎)할 각오로 끝까지 싸울것을 주장했으나 결국 비행기로 탈출했기때문에 지금도『큰 수치를 느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아직도 건장한 50세의 나이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헌팅턴비치에 살고 있다。

월남의 패망은 지난 75년 4월30일。한때 월남의 권력정상에 섰던 그는 싸움에 승리하여 조국땅을 밟는 꿈을 버리지 못한다。

『6년전 나는 이젠 끝장이라고 생각했었다。아무런 희망도 없었다。지금은 인도지나의 상황이 달라졌다。희망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긴 부츠를 신고、청바지와 카우보이형 남방셔츠를 입은 구엔·카오·키는 그가 갖는 희망이 허황되지 않은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공은 인도차이나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그것은 우리를 살리기위해서가 아니라 소련의영향권으로부터 아시아를 살려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얘기다。

그는 최근 경영해오던 술가게를 팔아버렸다。조금 전까지는 가끔씩 술가게 카운터에 나와앉은 그의 모습을 볼수가 있었다。카운터에서 그를 찾아오는『월남피난민들을 만나곤했다。아직도 그들은 구엔·카오·키를 지도자로 떠받들고 있는것같다。

『많은 월남인들이 함께 조국에돌아가 싸울날을 기다리고 있다。우리들은 여러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있다』

그는 실제로 구 월남군의 한공정대원과 최근에 가졌던 회합을 예로 들었다。그공정대원은 바로 3개월전 공산월남을 도망나왔다。

공정대원에 의하면 아직도 월남에는 키의 이름으로된전단이 뿌려져 있다。월남민들은 키를 잊지않고 있으며 그를 믿고있다는 것이다。

키는 그의 조국이 패망한 책임은 구엔·반·티우 전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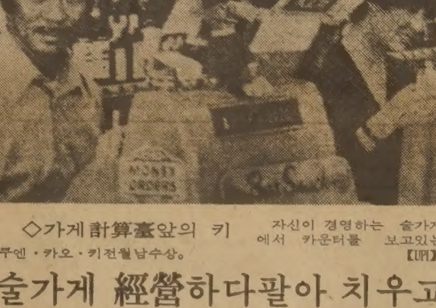
『티우는 현재 런던에서 조용히 살고있다。특히 월남의 마지막날 그가 저지른 과오는 돌이킬수 없는것이었다』

키는 스위스은행에 상당한 돈을 빼돌렸다는 루머를 부인했다。

『내가 도망나올때 짐이라고는 테니스백 하나뿐이었다。아내인 마이가 스튜어디스로 4만5천달러를 벌어놓았다』

그러나 그가 살고있는 집은 싯가 20만달러를 호가하고있다。

【로스앤젤레스UPI=聯合】



◇가게計算臺앞의 키　자신이 경영하는 술가게에서 카운터를 보고있는 쿠엔·카오·키전월남수상。【UPI】

술가게 經營하다팔아 치우고 20萬弗의 豪華 저택서 살아

오늘의 小史 <30일>

▲아일랜드 독립 (1930)
▲美 하버드대학 최초의 黑人교수 임명 (1949)
▲맥아더유엔군사령관내한 (1950)
▲리지웨이, 원산만덴마크함상서의 휴전회담 제의 (1951)
▲佛 駐韓유엔군대표 철수 (1965)
▲유엔군 방송국 21년만에폐쇄 (1971)
▲국방부 전투예비군부대 창설 (1975)

무사비 外相임명 이란강경파 強化

【테헤란·앙카라28日UPI·聯合=聯合】이란집권 3人대통령위원회는 27일 바니·사드르 前대통령의 반대로 임명이 연기돼온 회교강경파 미르·무사비(39)를 외상에임명、바니·사드르前 대통령 해임이후 회교정통주의자들의 권력구조를 한층 강화했다。

回敎공화당기관지 조무리·이슬라미의 편집국장인 무사비의 외상임명은 바니·사드르前 대통령축출이후 권력을 장악한 회교정통주의자들의 세력을 보다 강화시킨 조치로 풀이된다。

펜·소반 強者부상 캄國 새首相임명

삼린、명목상元帥에

【방콕27日UPI=聯合】캄보디아 공산정권은 27일 헹·삼린(47)을 국가평의회의장으로하고 캄보디아의 새로운실력자 펜·소반 인민혁명당(공산당)당수(45)를 수상으로하는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친베트남 프놈펜정권의 관영통신 SPK는 새로 구성된 1백17석의 캄보디아국회가 前내상 체아·심(49)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新憲法에 따라 삼린을 의장(국가원수)으로 한 7인국가평의회와 소반을 의장(수상)으로한 17인 각료회의를 선출했다고 전했다。

외교소식통들은 새 캄보디아정부체제에서 삼린이 국가원수직에 유임됐으나 그의 직책은 명목상 권한에 국한될것이며 최종적인 권한은 행정수반인 각료회의장이자 인민혁명당당수인 소반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KYOTO JAPANESE RESTAURANT

신장개업, 다양한 일본의 정통음식
뎀뿌라, 스시, 스끼야끼.
예약은 755—3010
영업시간 : 화~금 점심 12~2 : 30, 저녁 5~10 : 00
토~일 5~10 : 00(월요일 휴업)
주　소 : 1067 Midland Ave. Scarboro North of Eglington(오리올플라자내 무료 주차장)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MASA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863—9519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등
특별대매출, 월부판매 알선
●동부 : 255 MORNINGSIDE AV. 282—2820
●서부 :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A. E. LEPAGE 부동산
투자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A.E. LePAGE
각종주택　투자관리
각종점포　매매알선
대지및 상가　대출안내
1174 ALBION RD. at ISLINGTON
B) 741—9170
R) 851—4717
DOUGI WOO 우 덕 이

서 울 식 품
1. 싱싱한 민어회감 있읍니다.
1. 한국에서 직 수입하므로 싼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주소 :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피아노테크니션
이 상 철
중고피아노 매매, 수리, 조율, 재생, 운반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TORONTO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 정 렬, 김 선 남

PENDEX OFFICE PRODUCTS LTD.
Business Machines Stationery & Office
전자 CASH REGISTER할인판매
*기타취급품목
●각종 CABINET책상, ●사무용 학생용 타자기,
●각종 종이 테이프
FREE DEMONSTRATION 김 성 수
1436 QUEEN ST. WEST
☎ : 532—0111, 259—5820(R)

美國에 入養 참幸福찾은 음성나환자 집안의 男妹

差別없는 나라… 高校에서도 우등생
5년만에 一時귀국 친부모와 情나눠
한국未感兒에도 떳떳한 敎育기회를

음성나환자 子女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입양됐던 鄭相國(21)·鄭花順(19)남매가 5년만에 그들이 자란 성 나자로 마을에돌아와 친부모와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25일 귀국한 이들의 미국이름은 조셉·다츠와 마르타·다츠. 나환자子女란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받아야했던 과거를말끔히 잊고 밝은표정으로 美國에서의 생활을 들려주었다.

◇5년만에 귀국, 父母와 여름을 보내고있는 鄭相國·花順남매.

어엿한 청년과 숙녀로 성장한 이 두 남매는 이국땅에 남매를 떠나보낸 죄책감으로 가슴아파했던 아버지 鄭俊圭씨(60)와 어머니 李福禮씨(53)를 위로하면서『양부모의 따뜻한 보살핌과 즐거운 학교생활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있다』고 말했다.

『76년10월 李庚宰신부님과 미국인 사회사업가 가톨리브여사의 주선으로「부모가 있는 자녀는 입양시킬수 없다」는 미국의 입양법을 고쳐가면서 까지 미국의 양부모에게로 갔었지요. 그때는 조국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떠났었지요』鄭相國군은 이렇게 5년전을 회상한다.

『미국에서는 나환자子女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하고 신경쓰는 사람도 없어서 그동안 움츠리고 지냈던 마음을 활짝 펼수있었어요. 저희들의 양부모는 5남매를 두신분인데 그들과도 아무런 차별없이 지내지요. 다른 미국아이들처럼 나는 수업이 끝나면 베비·시팅을하고 오빠는 식당에서 음식나르는 일을 해서 용돈을 벌고 있어요』동생 花順양의 말이다.

현재 뉴욕주 센터포트에 거주하는 이들의 양아버지 존·다츠씨(42·컴퓨터 엔지니어)는 『우리나라에서 나환자子女를 내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학부모들의 거학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李신부에게 자청, 76년11월 이들 남매를 자녀로 맞아 들였다. 오빠 相國군은 올해 하버필즈고교를 4백명중 13등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오는 9월 뉴욕주의 르모인대학에 입학할 예정이며 동생 花順양은 하버필즈 고교에 재학중인데 역시 우등생이다.

『다시는 볼수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자식들을만나게 된것은 천주님의 은총때문 입니다. 父母가 나병을 앓았다는것 하나만으로 진강한 자녀들까지 배안시하여 태어난 조국땅에서 활개치고 살수없는 현실은 큰 비극입니다』어머니 李여사는 눈물때문에 말을 잇지못한다.

『조국을 원망하고 울면서 떠나갔던 아이들이 밝고 명랑한 얼굴로 돌아온 것을보니 안심이 됩니다. 우리아이들의 일시귀국을 계기로 일반 음성나환자子女에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됐으면 합니다』아버지 鄭씨는 이렇게 말한다.

李庚宰신부는『전국적으로 1백여개의 나환자촌에 수천명의 子女들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학교에도 입학도 할수없는 전근대적인불행을 겪고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는 나환자子女만 다니는 학교가 없어져서 일반 정상어린이들과함께 떳떳하게 교육받을수있어야한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음성나환자를 父母로하여 태어난것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것을신의 은총으로 생각하고있어요. 같은 처지의 子女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고떳떳하게 살라고 부탁하고싶어요』

이들남매는 라자로마을에서 양계장을하는 부모를 돕다가 8월12일 미국으로 떠난다.

이들의 한국주소는 경기도 始興郡 儀旺面五全里 보석골. 미국 주소는 12 FOREST DRIVE CENTERPORT, N.T. 11721 U.S.A.

【崔成子기자】

나의 이력서

〈題字 玄信圭〉

玄信圭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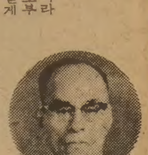
農振廳長 시절

研究室과 廳長室 격일제로 東奔西走

소나무揷木發根연구가 한창 열기를 더해갈 무렵에 5·16혁명이 일어났고 뒤이어 내 신상에도 중대한 변화가 따라왔다. 농촌진흥청장직 교섭을 받았던 것이다. 농진청은 미네소타대학 메이시학장의 전의에 따라 58년 5월 대통령령에의해 발족됐던 농사원이 5·16후 확대개편된 기구다. 이와함께 농사원시대부터 자리를 지켜온 鄭南圭원장이 농림부차관으로 전임되면서 후임 청장에 나를 추천했다. 따라서 당시 농림부 柳炳賢장관으로부터 청장으로 와달라는 교섭을 받게 된 것이다.

나는 한사코 사양했다. 본디의 성품과 소질로 미뤄보아 관직에는 맞지않을뿐아니라 외국의 연구비를 받아 실험중이니 더욱 연구실을 뜰수가 없었다. 미군정때 임업시험장을 金東變씨에게 맡기고 학교로 돌아온것도 행정직이 어울리지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후에도 두차례나 산림국장 교섭을 받았으나 그 또한 연구만이 나의 天職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거절했던 것이다.

그러나 柳장관은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달라며 수락을 채근했다. 하는수없이 1주일의 절반(月水木)은 농진청에 있고 나머지 요일엔 연구실로 가겠다는 조건을 달아 63년 7월4일 농진청장 자리에 앉았다. 내심으로는 진흥청과 연구실이 서로 가까운 곳에 있고 또 비슷한 연구기관이며 내 또한 농업에는 관심이 있었으니 해볼만한 일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청장이 되고 보니 할 일도 많고 그대신 애로와 난점도 수다했다.



◇筆者의 전임 농진청장 鄭南圭씨.

당시 각 시험연구기관의 공통점이면 연구직의 질적향상, 처우개선, 농촌지도사업의 一元化등이 눈앞의 할 일로 닥쳐왔다. 무엇보다 식량증산에 관한 기술개발과보급을위해 정열과 사명감을 갖게하는 일이 급했다.

◇筆者가 농촌진흥청장으로 있을때 착수한 토양비옥도조사에대해 朴正熙전대통령에게 사업의 중요성과 개요를 설명했다.

첫 1년동안은 정열만을 앞세워 농촌을 돌며 농촌부흥에 농민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외국의 예를 들어 언성을 높였다. 또 아침마다 농진청 뒤 麗妓山에 올라 청사를 내려다 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농촌부흥을 기구했다.

무엇보다 재직중에 착수한 「한국의 토양비옥도조사」사업은 지금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기념되는 일이었다. 당시 우리의 농토는 오랫동안 비과학적으로 다루어옴으로써 地力이 노후하여 이삭이 익기도전에 떨어져버리는 秋落畓이 많았다. 따라서 전국농토를 세분하여 토성의 조사분류와 비옥도를 조사, 농토의 결함을 진단하고 地力을 증진키위한 과학적인 처방이 필요했다. FAO 원조에의해 5개년계획으로 이사업을 실시키로 협약이 이루어져 각국의 경험있는 토양학자들이 왔다. FAO측 조사팀으로는 네덜란드의 베르마즈트박사를 책임자로 5명이 내한했고 우리측에서는 金泳燮·吳旺根·朴天緖·申용화씨 등 진흥청연구진이 참여했다. 10여명으로 구성된 토양비옥도 조사단은 전국을 돌았다.

土壤비옥도調査 農土개량 밑받침…자랑스러워

쇠진한 농토에 생기를 불어넣기위해 客土를 권장하고 퇴비를 증산토록 한것도 이무렵부터 처음으로 강조된 것이다.

물론 그사업은 내임기중에 끝낼 수는 없었다. 다만 시작으로 기초를 만든데 의의가 있다할것이다. 훗날 이사업의 결과로 세밀한 土壤圖가작성되어 농경의 바이블로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도 해내지못한 훌륭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2년쯤이 지나 내게는 결단의 단계가 닥쳐왔다. 청장직이란 순전한 행정직으로 연구활동을 병행할수가 없었다. 마치 한사람이 두주인을 섬기는 일이나 진배없었다. 『한사람이 두주인을 섬길수는 없다』는 성경말씀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대학의 연구실에 있으면 진흥청의 업무가 짐이되고 농진청에 가있으면 연구실의 진행에 마음이 쓸려어느 한쪽에도 성실할수가 없었다. 한쪽을 택하지 않고는 가책에 견딜수 없을것 같았다. 고게쓰교수의 교훈이 되살아나 채찍질해왔다.

車均禧농림장관에게『청장이란행정가가 할일이니 내가 맡아할일이 못된다』고 사퇴의사를 밝히고 허락을 얻었다. 이자리에서 나는 후임으로 九州대학의 후배이고농협대학장으로 있던 崔應祥씨를추천했다.

만2년만인 65년8월 드디어 짐을 벗고 학교연구실로 돌아갔다. 후련했다. 洪性玉군과함께 실험에 혼신하여 소나무 삽목발근을 촉진하는 협동인자를 최초로 규명, 세계를 경탄케 한일은 청장직 퇴임선물이되고도 남았다. 역시 내가 해야할일은 학구뿐이었다.

쌀위주의 食生活 개선위해

보리국수·감자요리 試食會
主婦敎室중앙회서 調理法도 설명
단백질·칼슘등 고루함유
성장기 어린이에도 좋아

쌀 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주부교실 중앙회는 26일 보리국수와 감자요리 試食평가회를 열었다. 이 평가회에는 주부50여명이 모여 보리국수로 만든 냉면과 콩국수, 감자로 만든 고로케등을 시식하고 영양분석과 조리방법을 들었다.

보리냉면과 콩국수는 보리가루를섞어서 만든 1배% 보리면으로 조리됐는데 보리국수는 요즘 시판을 시작했다. 보리냉면은 물이 끓을때 국수를넣고 5분정도 삶아익혀서 냉수에 헹구고 사리를만들어 그릇에 나눠담는다. 육수는 닭뼈다가 차게식힌냉수에 액체수프를 풀어서 만들고 오이채 친것,달걀 삶은것등을 고명으로 준비한다. 보리국수는 비빔국수로 만들어도 맛있고 메밀국수처럼 무우즙과 파를넣은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된다.

보리 국수의 영양가는 7백50g당 3백32칼로리로 쌀의 3백40칼로리보다 약간 낮으나, 단백질은 10.3g 對 6.5g으로 보리국수가 높고, 칼슘도 40mg對 24mg으로 보리국수가 두 배 가량높다. 철분과 비타민도 보리가 2배~3배나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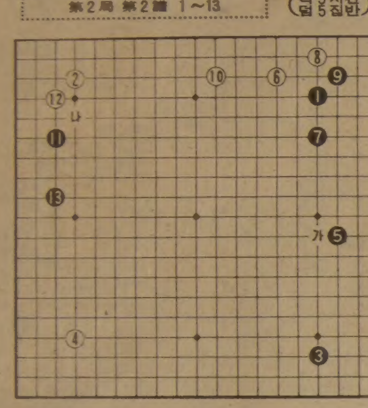
감자고로케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영양 간식으로 조리도 간단하다. 또한 감자는 우수한 알칼리성 식품이어서 산성체질을 개선하는 건강식품으로 꼽히기도한다. 감자를 살짝 찐후 이겨서 동그랗게 빚고 튀김 옷을 입혀 끓는기름에 약 2분간 튀겨낸다. 튀김을 좋아하지 않으면 프라이팬에 전을 부치는 식으로 지져서 먹어도 좋다.

이날 보리 냉면과 콩국수를 시식한 주부들은『보리면은 맛이 구수하고 쫄깃쫄깃해 감칠맛이 난다』고 평했다. 그리고 보리국수를 온면용, 냉면용, 비빔국수용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 시식회에서는 주부교실중앙회가 개발한 보리김등 간식용 요리도 소개됐다.

◇「식생활 개선을 위한 보리·감자요리 시식회」가 지난 26일 주부교실중앙회 주최로 열렸다.

第12期 名人戰 挑戰5番棋

第2局 第2譜 1~13 (덤5집반, 각5시간)



白(名 人) 曺薰鉉〈1敗〉
黑(挑戰者) 徐奉洙〈1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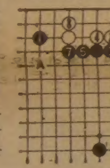
순한국식 餠菓店「好園堂」의 鄭雲煥사장 자택이층에서 이 바둑이 두어질 때 바로 아래층인 사랑방에서도 이색적 대국이 개시되었다. 다름아닌 鄭사장과 오스트리아사람인 헬무트·하시베씨와의「국제친선대국」이었다. 하시베씨는 원래 졸업을 앞둔 의학도로서 재작년에 유럽챔피언이었다가 작년에 2위로 물러나게되자 금년에는 기필코 타이틀을 탈환하겠다는 결심을하고 약 한달기한으로 한국을 찾아왔는데 마침 名人戰 대국실을 제공한 鄭사장과 공식대국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바둑의 기록을맡은 국가대표 許顯씨는『오늘은 두개의 빅게임을 하게되었다』고 아래윗층을가리키며 뜻깊게 웃어보였다.

그건 그렇고 이 바둑. 黑1、3과 白2、4로 東과 4에 똑같은 형이 생기

의식적인 長期戰태세

자 黑5의 중공식. 제1국은 黑5가 한칸 높은「간」자리였고 白2、4는 모두 좌측 3·三이 다르지만 전보에서 지적했듯이 도전자가 제1국과 같이 중공식을 들고나온 것은 흥미진진한 일이다.



다만 白6이하 10의 상용수법뒤 黑11은 장기전을 의식한 稀貴수법. 黑11은 보통대로「나」에 걸쳐도 무난했잖나는 국후평이지만 도전자는 白12의 正手를 맞이하여 黑13으로 허리띠를 잡혀 조였다. 제1국에서는 黑7을 참고도처럼 黑1에 협공하여 이하 白8까지 되었을때 黑「A」를 손떼고 다른곳에 선착했으나 이 바둑은 순리로 두어가고 있다. 〔凡〕

3級이상 女性공무원 전체의 1%에不過

YWCA 進出돕기훈련

대한 YWCA연합회는 여성들의 公務員職진출을 돕기위한 훈련을 1일~3일, 소사에있는 버들캠프에서 개최한다.

이훈련에는 女大生등 공무원직 진출을희망하는 여성들이 참가,「공무원이란?」(총무처 이종득씨),「여성 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신용자 YWCA위원)등에 대한 강연을 듣고 토론도 갖게된다.

Y연합회가 금년에「여성의 공무원직 진출」을계속추진하고 있는것은 다른분야에 비해 공무원직에서의 여성진출이 너무 뒤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78년현재 여성공무원은 전체공무원의 16.8%로 美國의 41%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66%가 교육공무원, 17%가 교환수등의 단순기능직, 15.5%가 1호급의 일반직으로 교육공무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매우 낮은 직책에서 일하고있다. 여성 공무원의 학력은 초급대졸업이상이 62%, 高卒 36.2%, 中卒 9.2%이다.

YWCA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1%밖에 안되어 高位職에의 여성진출이 얼마나 힘든가를 나타내준다.

현재 일반행정직에서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 분포를 보면 노동부2명, 경제기획원 1명, 국립도서관2명, 시립도서관 3명, 보사부7명, 시청 8명, 농촌진흥청 6명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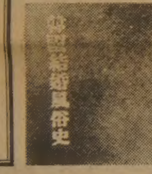
5급이상의 여성공무원직은 부녀사업과 관련된 자리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위직 여성공무원이 늘어나지 못하는 기본적인 이유가 되고있다. 또한 관리자들이「여자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고, 출산휴가등을 줘야하며, 地域이동이 힘들다」는 이유로 여성을 기피하고 있는것도 큰 문제이다.

공무원이 될수있는길은 7급·9급시험에 합격하거나 5급행정고시에 합격하는 길이 있다.

현재 사무관까지는 여자들에게 충분히 문이 열려있으며 法的인 면에서는 전혀 남녀차별이 없다. 현실적으로 승진, 부서배치등에서 차별을 받고있긴 하지만 法定승진기간이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과거처럼 한급수에만 머물러 있는일은 없게된다.

YWCA는『공무원직은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 많이 진출할수 있는 유망한 분야인데도 공무원에대한 정보부족으로 여성들의 지망이 적다』는 점에 착안, 여성공무원과 여성단체와 공무원지망여성들이 협력하여 정보와 도움을 주고받을수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위해 주기적으로 모임을 마련, 직업의식교육과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경험담을 듣게된다.

出版소식



故 金靜子女史 생전에쓴「韓國 結婚風俗史」증보판

한 가정주부가 일생동안 연구해온 결혼풍속에관한 자료를 한데 모은「韓國結婚風俗史」재판이 나왔다.

故 李龍文장군의 미망인으로 그자신도 이미 세상을 떠난 金靜子여사가쓴 이책은그의 死後인 지난 74년 초판이 나왔으며 이번에 長男 李健介검사에의해 다시꾸며져 출판되었다.

原始社會에서 시작하여 古朝鮮, 三韓,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朝鮮시대를 흘어내려온 이책은 그시대의혼인제도뿐 아니라 國家의 흥망성쇠, 시대적 배경을 함께 서술하고 있으며 西藏, 印度, 中國의 특이한 혼인제도를고찰하여흥미를더해준다. 母系사회, 父系사회, 亂婚, 集團婚, 약탈혼, 代贖婚, 近親婚등 우리역사에서 있었던 각종 결혼제도와 그 배경을 설명하고있다.

著者 金여사는 平壤女高普를 졸업하고 京城師範에서연수했으며 지난73년 별세했다.【民俗苑발행·4×6倍版·233面·8천원】

許英子씨 文學특강

서울YWCA는 1일저녁 7시 서울Y대강당에서「文學이 그리는 하느님」에대한 許英子교수(성신여대)의 특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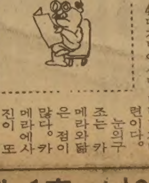
삼미회 꽃꽂이展

삼미회(회장 李仁德)꽃꽂이전이 7월3일 하이야트호텔에서 열린다. 일선장병위문성금을 마련하기위한 이번 전시회에는 사범·회원작품 1백20점이 전시된다.

現代人의 健康百科

老眼과 돋보기

노안은 쉽게 말해서 눈의 조절력이 떨어져 30cm정도 거리에있는 글자나 물체가 또렷이 보이지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같은 현상은 사람에 따라 차이가있기는 하나 정상인라해도 40대가넘어서면 나타나게마련이다.



눈의구조는 카메라와 닮은 점이 많다. 카메라에 사진이 또렷이 찍혀 나오기 위해서는 우선 촛점이 잘 맞아야 한다. 이같은 일은 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즉 렌즈에 해당되는 눈의 水晶體가 그때그때 잘 조절되어야 한다. 수정체는 본시 탄력성을 갖고 있게 마련이어서 양에 붙어 있는 毛樣體筋에 의해 엷어졌다 두꺼워졌다 할수있게 된다.

그런데 이 수정체는 해가 갈수록 변화가 일어난다. 좀더 설명해서수정체속에서 核이 생기거나 주위가점점 단단하게 굳어져 가는것이다. 40대이후 조절력이 떨어지는것은 이때문이다.

돋보기는 45歲에 1度…나이와 比例

노안은 글자를 30cm정도떨어져 또렷이 보이는지를 확인해봄으로써대충은 알아낼수 있다. 그러나 노안의 정확한 진찰은 사람에 따라차가있어 검사를 해보아야 알수있다.

노인이 되면 물체나 글자가 30cm이상 멀리 떨어져 있어야 잘 보인다. 이때문에 잔글자보기가 어려워진다. 책을 조금만 보아도 피로해지는것은 이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해질녘에 또렷이나타난다.

이땐 돋보기 안경을써야 잘보인다. 돋보기의 도수는 근시나 원시등이 없는 정상인의경우 대략45세 1도, 50세 2도, 55세 2.5도, 60세 3도, 65세 3.5도, 70세 이상 3.75~4도가 적당하다. 그러나 근시나 원시가있으면 달라진다.

근시는 정상인의 경우보다 근시의 도수를 빼준 노안경을 원시는 이와 반대로 보태준 도수의 노안경을 택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개인의 차를 생각하지 않은 대략적인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노안경을 택할때는 근시나 원시, 난시등이 있을때는 말할 필요없고 정상인이라 해도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돋보기를 마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40대이후 눈의 검진은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성인병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다.

金在浩(醫博·가톨릭醫大江南성모병원안과장)

모눈종이 위의 生 〈135〉

趙善作 作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㊹

『뭐가 그렇게 재미있으세요?』

미닫이 문을 비긋이 열며 은애는 우선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웃음의 꼬리를 아물리지 못하시며『아냐, 아냐』알것 없다』하고 팔까지 내저으셨다.

나는 은애가 늦은 시간에 왜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왔나 알고 있었다. 그것은 어머니와 나의 웃음 소리 때문이 아니었고, 웃음 소리는 다만 내가 아직 잠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애에게 알려주는 신호에 지나지 않았고, 은애는 나에게 문간방의 친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와 웃고 떠들며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문간방의 은애 친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이라든가, 대문을 열어주러 나간 은애가 잠시 문간방에 들러 지체한 것따위 바깥의 동정에 대해 귀를 열고 있었던 것이다.

은애가 들어오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은애를 다시 문밖을 향해 돌려세우며 말했다. 『잠깐 저 방으로 좀 갈까?』

어머니께서 그런 나를 의아한 시선으로 올려다 보았지만 나는 신경쓰지 않았다. 은애의 방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했다.

『물어 봤어?』

『네. 잔 일이 있대요. 그런데 형님을 만난 기억은 없다던데?』

『그랬겠지. 그래 뭐랬어?』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고?』

『네』

『노영지라고 했지? 그 아가씨하고 나좀 친해보고 싶은데… 지금 놀러가보도 될까?』

『그러시죠 뭐』

노영지와 친해보고 싶다는 내 말은 은애에게 좀 뜻밖이었던 모양이었다. 대답은 그렇게 선선히 하면서도 은애는 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앞장서 방을 나갔다.

마루로 나와서 나는 어머니께『어머니 먼저주무세요. 문간방 아가씨들하고 잠깐 얘기 좀 하다 올께요』하고 말했다. 『그래라』하시는 어머니의 대답에 이어 나는 은애에게『또 한아가씨도 돌아왔지?』하고 물었고,『혜정이요? 네』하고 은애가 대답했다.

은애가 앞장서 문간방의미닫이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형님이 너희들을 좀 뵙고 싶어 하신다』

노영지는 방바닥에 배를깔고 엎드려 카세트 라디오의 다이얼을 맞추고 있다가 일어나 앉았고, 혜정이라는 아가씨는 금방 수돗간에서 들어왔는지 수건으로 발의 물기를 닦고 있었다.

『들어오세요』라고 혜정이가 멋없이 고개를 까딱해 보이며 말했고, 노영지는 얼굴에 미소를 흠뻑 머금고 『누추하지만…』하고 혜정이의 말에 꼬리를 달듯이 말한 다음『은애한테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들어 오세요』하고 진심으로 환영하는 기색이었다.

『실례하겠어요』하고 말한다음 나는 은애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비좁은 방이 네명의 여자들로 꽉 차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런데 은애씨가 무슨말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난 날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그렇게 독특한 성격이나 용모가 못되는데…』

은애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은근히 걱정을 하면서 내가 말을 꺼내자 노영지가 장난스럽게『기숙사 사감 선생님같이 엄격하시고… 뭐 그런 얘기예요』하고 웃었다.

은애가 난처해 하며『내가 언제 그랬니?』하고 항의하자 혜정이도 거들었다.『그랬어. 집으로 남자 친구를끌어들인다든가 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면 그날로 퇴사시킨다고 겁을 주었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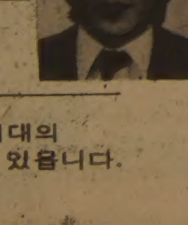
서울한의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의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 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침구과·산후보약(왕진함)
주소 : 10 Blackfriar Ave. #216 Weston, Ont. (Kipling·Dixon)
한의사 김 장 석
☎ 247-9347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친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라스만스」회사 부설
소매경영학 연구소가 한국인 상점
경영자들을 위해 만든 경영학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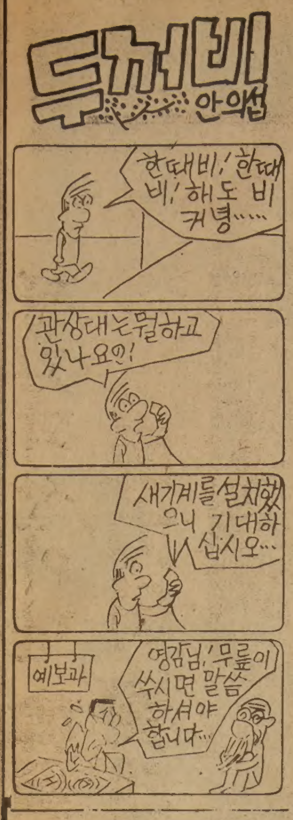
RSI

〈라스만스·오브·펄멀 캐나다 유한회사〉는 소매업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깊이 깨닫고 소매상들의 수익을 높이고 경영방식을 능률화 하기위한 무료강좌를 마련했읍니다.
이 강좌는 어떤 종류의 소매업에도 적용이 되는 소매경영학 입문을 비롯, 보다 전문적인 경영학 코스도 계속됩니다.
이 강좌에서는 라스만스회사 담배를 더 많이 팔도록 권고받는다던가 하는일이 결코 없읍니다. 이는 지금까지 이 강좌를 거쳐나간 7백여 상점주들이 증명합니다.
이 코스를 시작할때 요구되는 디퍼짓 $25은 코스가 끝남과 동시에 되돌려 받게 됩니다. 수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교재로 채택된 RSI편찬의 〈소매경영학〉책과 각종 부교재, 한국인 통역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평소에 상점을 경영하시면서 느끼는 여러 어려움— 그것을 RSI강좌가 해결해 드릴 것입니다.

등록문의는 : 1500 DON MILLS, DON MILL, ONT.
전 화 : (416) 449-5525
THE RETAIL SERVICES INSTITUTE
MR. PETER TESAR

the Permanent

◇주택
● Yonge/Sheppard $119,000
● Finch/McCowan $134,000
● Queen/Woodbine $139,000
● Victoria Pk./Danforth $149,000
◇사업
● 가게(주 $4,000)+건물 $99,000
● 꽃가게 (1주6일·10am~6pm) $17,500
★주택 2차 모기지를 1차 모기지 이자율로 알선해 드립니다.
481-3443 (사무실)
745-5485 (집)
1901 Yonge St. Toronto
황 순 일
the Permanent
Canada Permanent Trust Company/Real Estate.



외국인敎授초빙제도「死藏」

——말뿐인 「세계수준大學」정책

엄청난費用 겁내 초빙外面

외국인 필수講座도 툭하면펑크

大學은 폐쇄성버리고 문호開放해야

우리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만들자는 문교정책의 핵심부분인 외국인교수초빙제도가 겉돌고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후 이정책을 적극권장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예산이 없는데다, 우리 교수사회특유의 폐쇄성때문에 이를 알게모르게 기피하게돼있는게 현실이다. 엄청난 돈을들이며 대학생들이 해외유학을 떠나는것도 중요하지만 해외의 수준급교수를 거꾸로 불러들인다면 한학생의 유학비용만으로도 수많은 국내대학생들이 선진학문을 흡수할수있다는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일치된 지적이다. 이문제는 정부가 어떤형태이든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겠지만 우선대학들 스스로가 좀더과감한 시도와 개방적인자세를보여야 할것이다.

종합대학의 경우 새학기들어 외국대학에서 강의중인 현직교수를 스카우트해온 예는 1건도 없으며 그나마 강의중이던 외국인교수의 귀국으로 외국교수에의한 강의가 필수적인 강좌마저 펑크가나고있는 실정이다.

대학들이 외국인교수 초빙을 꺼리고 있는것은 우선 웬만한 외국교수 1명초빙에 드는비용이 국내교수의 4~5배나 드는데다, 학문적인 자극이 가능한 교수를 끌어오려면 적어도 외국대학의 A급교수라야하는데 이들은 한국에서의 강의가 자신의 학문발전에 공백기가될것을 우려, 대우와 상관없이 이곳에 오지 않으려하고 있다는것이다.

이때문에 각대학들은 외국의 우수한교수채용은 엄두도 못내는 형편이고 기껏 재한외국인을 시간강사로 쓰고있거나 자매대학교등 특수한관계에있는 외국대학에서 교환교수를 불러들이는게 고작이다.

지난해 6월현재 우리나라에 와있는 외국인교수는 4백16명으로 전체교수 1만3천여명의 교수중 4%가 채 안된다. 외교관·선교사 또는 외국에 유학, 그나라 시민권등을 취득한 한국인이다.

梨大가 7명으로 전체의2·1%이며 외국인교수채용에 유일하게 문교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外大가 동시통역대학원까지 합쳐37명으로 전체의19·8%이다.

이가운데 서울大가 8명으로 전체교수 1천40명의 0·8%, 延世大가 27명으로 전체6백19명의 4·4%, 高麗大가 8명으로 전체의1·6%까지 합쳐 37명으로 전체 1백87명의 19·8%이다.

특히 서울大의 경우 8명중 1학기동안만 강좌를 위촉, 시간강사로 채용한 대사관직원등 재한외국인 2명과 외국국적의 한국인2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외국인교수는 4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은 현재 영문과에 3명 불문과 2명, 정치학과 1명, 商大1명, 사회과학연구소에 1명이 있을뿐 외국학문의 유입이 절실한 기초학문분야는 전혀없다.

현재 우리대학에서 강의중인 외국인교수의 입국경로를 보면 대학이앞장서서 특정교수를 선정, 스카우트한예는 한건도없다고 모두가 특수사정과 관계에따라 들어온것이다.

어느경우이든지 우리의 대학들은 자유경쟁에 의해 파격적 대우조건을 내걸고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기 불가능한 현편.

서울工大 李業周교수(항공공학)는『자기나라에서 월 3천~5천달러 이상 받는외국인 교수를 데려온다는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하고『자연과학의 거의 전분야에 이러한 교수들이 필요한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모처럼 초빙해온 외국인 교수도 대부분 계약기간인 1년미만이어서 한국사정에 익숙해지면 가게되고 대학측에서는 다른 외국인교수 확보에 번잡과 애로를 다시 느껴야한다.

외국인교수 초빙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또다른 이유는 배타성 때문. 서울大 C모교수는 국내에 전공한 학자가 없고 해외유학시절부터 잘아는 외국인 교수를 좋은조건으로 초빙할수 있을것같아 학과에 건의했더니 대부분의 교수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았다고 불평하고『아마도 이러한 교수가 국내에오면 자신들의 학문적 지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이같은 현실에 대해 서울大 金모 교수는『외국인교수는 비단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수에게도 필요하다』며 돈이 들더라도 이제도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金時福기자】

"純潔"狂信 네母女 自殺慘劇

막내딸 外泊격분… 20代 세딸만 死亡

비닐봉지 뒤집어쓴채 서로 목졸라

남자 혐오症… 어머니만 決行못해

◇允歆양

◇允樹양

◇允希양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광신도 일가족 4모녀가 집단 동반자살을 기도, 3자매가 숨지고 어머니는 살아남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7일밤 11시께 서울城東區杏堂2洞341의1 蔡振淑씨(55·여·가톨릭영세명 테레사) 집안방에서 蔡씨의 장녀 馬允歆(28·영세명 말체리나) 2녀 允樹(26·영세명 루시아) 3녀 允希양(22·영세명 안네스) 등 3명이 손발을 헝겊과 노끈으로 묶고 비닐봉지를 머리에 뒤집어쓴채 자살해 숨져있는것을 蔡씨의 2남 馬憲佑군(20·선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憲佑군에 의하면 이날 일을 마치고 귀가해보니 누나3명이 안방에 나란히 누워 숨져있었고 어머니 蔡씨는 넋을잃고 앉아있다가 憲佑군에게 『함께죽자』고 말해 울면서 어머니를 만류했다는것.

蔡씨는 1·4후퇴때 越北에서 월남한 남편 馬東成씨와 결혼했는데 본부인이 나타나 간통혐의로 피소, 지난 74년1월 서울中部경찰서에 구속됐다 4월말 석방됐는데 이사실이 보도되자 정상생활을 할수없을 정도의 과대망상증세를 보여 『권력있는 사람만이 살수있다』는등 남성 사회를 혐오하면서 지난 76년부터는 자주『죽어버리겠다』고 말했고 지난해4월에는 明洞성당에 찾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호소, 7일간 단식투쟁을 벌이다 경찰에의해 3자매와함께 淸凉里뇌병원에 넘겨져 4월2일부터 6월말까지 입원치료를 받기도했다.

지난 21일에는 3녀 允希양이 외출했다가 남자 5명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3일만에 귀가하자 24일 『순결을 잃었으니 함께 죽자』며 자살키로 결의, 27일 하오3시께 允樹·允歆·允希양 차례로 1시간동안 비닐봉지를 쓰고 손발을 묶은채 서로 목을 졸라 숨진뒤 蔡씨는 기운이 빠져 자살에 실패했다.

이들은 또 79년 2월5일에도 일가족이 비닐봉지로 집단자살을 기도했다가 방범대원들에 발견돼 실패하기도했다.

蔡씨등은 지난62년부터 싯가 1천만원짜리집에서 살아왔는데 지난75년2월 남편馬씨(당시 60세)가 사망하자 장남 憲森군(24·입대)등 5남매 다함께 봉투를 만들어 팔면서 생계를 이어왔다.

막내딸 允希양 亂行흔적 없어

한편 숨진 3자매에대한 사체부검이 29일하오2시부터 2시간동안 서울지검동부지청 金圭燮검사의 지휘로 서울시립동부병원에서 실시됐다.

이날 부검에서 여러사람에게 욕을당한것으로 알려져있던 막내 允希양은 순결을그대로 간직한것으로 밝혀져 어머니가 지나치게 딸들의심, 그같은 불행을 가져온것으로 추정됐다.

유일한 한국인
강찬영변호사
534-1129
534-1120

不法음반제작 懲役

비디오·테이프도 公倫심의받게

文公部, 改正음반법 細則마련

문공부는 29일 해적판음반제작과 저속비디오·테이프의 확산을막기위해 새로이 비디오·테이프제작을 음반법에 포함시키고 불법음반제작·판매자의 벌칙강화를 골자로한 개정음반법의 시행세칙을 마련했다.

이 지침의 주요내용을보면 ▲비디오·테이프를 제작·복사하고자하는자는 시설을 갖추어 음반제작자등록을 해야하며, ▲개정음반법시행(81·5·3) 이전에 제작된 비디오·테이프는 公倫의 심의를 받아 판매·배포할수 있도록 경과조치기간(7·1~9·30)을두고 ▲각급학교의 교재용은 문교부중앙교육원의 사전심의를 받도록했다.

또 불법음반제작 판매자의 처벌규정을 종전「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2년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홍콩 往來승객 철저檢疫 지시

보사부는 27일 대만및 홍콩지역에서 내왕하는 항공기 선박및 승객에대한 검역에철저를 기하도록 전국 13개항만 및 공항검역소에 지시했다.

男學生앞서 擔任교사 꾸중들은 女高生 家出8일째

【木浦=聯合】 남학생들이 보는앞에서 담임교사로부터 매를맞고 심한 꾸중을들은 여고생이 집을나간지 8일이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있다.

전남海南郡北平面南倉里北平종합고2년 金孝順양(17·北平面臥龍里)은 지난 19일 하오 담임교사 尹모씨(31)로부터 여고생답지않게 머리를 짧게 깎았다고 지휘봉으로 종아리를 맞고 꾸중을 들은뒤 이틀후인 21일상오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

급우들에 따르면 金양은 꾸중을 들은 다음날인 20일 학교에 정상 등교했으나 매를 맞은 사실에대해 크게 수치심을 느끼고 괴로와했다는 것.

학교근처에서 하숙을 하고있는 金양은 21일 하숙집에서 옷가지 몇벌만 챙겨나간뒤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한국인技能 세계에 떨쳤다

五色꽃가루 뿌리며 沿道시민들 환호

技能올림픽 選手團 돌아오던날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4연패를 차지,기술한국을빛낸 우리나라선수단일행(임원20명·선수31명)이 29일 하오3시50분 대한항공 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개선했다.

미국 조지아州 아틀랜타市에서 열린 제26회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1개직종에 31명의 선수들이 참가,금메달 15개,은메달 6개,동메달 3개,대회장특상2개등을 따내 종합우승을 차지한 선수단은 이날 공항에서 李正五과학기술처장관을 비롯한 관계인사와 소속업체대표,가족친지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날 선수단과함께 귀국한 洪性哲국제기능올림픽한국위원회회장은 귀국인사를 통해『이번 대회는 일본,서독,자유중국등이 우승을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어려운 대회로서 종합우승은 우리의 월등한 기능의 소산』이라고 밝히고『온국민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가구부문에서 화장대를 만들어 금메달을 딴 金鍾九군(20·삼익악기)은『우리선수들이 우승하는데는 교민들의 도움이 큰몫을 차지했다. 서양선수들은 체력이 좋아 일을 빨리할수 있었으나 정밀도에선 우리선수가 훨씬 앞섰다』고 소감을 말했다.

간단한 귀국인사와 기자회견을마친 선수단은 이날 하오5시30분 汝矣島광장에 집결, 서울大橋—西小門—世宗문화회관에 이르는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10대의 오픈카에 분승한 선수단의 카퍼레이드행렬이 西小門에 이르자 3군의장대와 군악대가 힘찬행진곡을 연주하며 퍼레이드에 합류, 선도했으며 주변의 고층빌딩옥상에서 개선을환영하는 오색종이 꽃가루가 뿌려졌고 연도의 많은시민들이 자랑스런 선수들에게 열렬한 격려와 환호를 보냈다.

중앙청앞을 거쳐 世宗문화회관 광장에 도착한 선수들은 하오6시30분부터 과학기술처주관으로 世宗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환영대회에 참석했다.

◇金浦서 성대한 환영식 국제기능 올림픽에서 4연패,한국의 기능을 세계에 과시한 선수단이 金浦공항에 도착,환영인사를 받고있다.

電氣침 강도 20代1명검거

신종흉기인 전기침을 들고 다니던 강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南部경찰서는 29일 金東明군(20·서울九老區九老4洞930의2)을 강도상해혐의로 구속했다.

533
2361

平和統一자문회의 委員연수교육시작

평화통일정책 자문회의는 29일부터 8천9백여 자문위원에대한 81년도 통일연수교육에 들어갔다.

교육내용은 평화통일 정책, 國政指標, 북한의 최근동향및 대남전략등이다.

첫날인 29일 李範錫사무총장은 서울지역 연수에, 金相球사무차장은 全南지역 연수에 각각참석,「자문위원의 긍지와 사명」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했다.

교 회 안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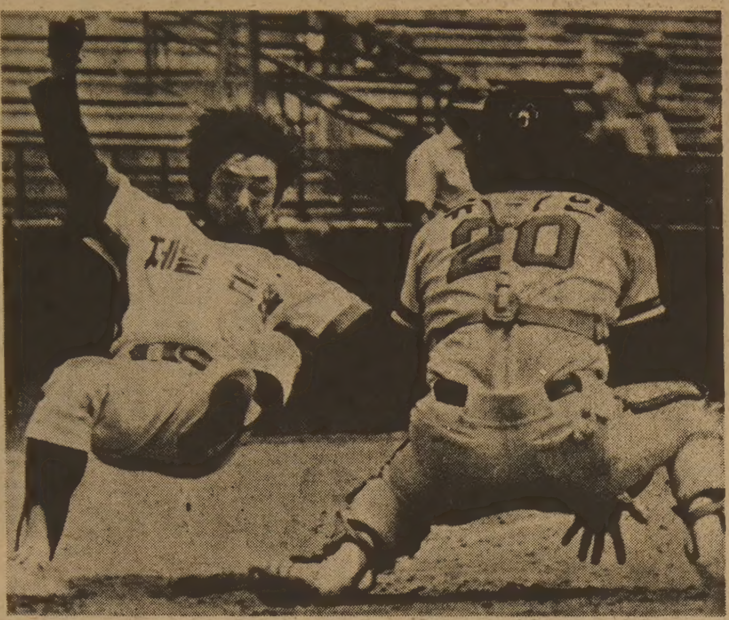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어정준	주일오후 1: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11:30 오후 2:00 영어설교 오후 1:00 금요저녁 9: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00 성경공부 2: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743-8224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30	3819 Bloor St.W.	741-5411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토요집회 오후2시 평일기도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30 주일낮 12:00 주일오후 2: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856 279-833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91
런던한인교회		주일대예배11:00 주일저녁예배7: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미시사가연합	유환진	주일오후 2:00 학생영어예배 오후 1:30	2500 Mimosa Row 미시사가	276-5163 277-2394
반석교회	왕세주	주일오후 1:30 성경공부 2: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241-2544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6-2967 221-1382
빌라델비아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423-9324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925-852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00 토요오전 7:00	105 Wilson Ave.	482-4577 633-3132
서머나감리교회	김욱희 전도사	주일오후 2:00 수요예배 7:30	675 Sheppard Av.E.	752-9727 752-9860
선교교회	안상범	주일 1:00 저녁 7:00	1 Greenland Rd. (Donm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00 금요기도회8:00	1 King St. Weston	661-7162 247-9577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예화삼	주일오후 2:00 4:00 수요오후 7: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3202
순복음카나다	백낙순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 8:00	1030 Albion Rd.	466-4621 466-8511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00	98 Finch Ave.W.	225-4430 665-2866
명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30 수요저녁 7:30 금요저녁10: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백	주일오전11:00 금요오후 8: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 7:30 일요오후 2: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자유감리교회	여용순	오전11시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웅출	주일오후 1:30 금요오후 7:30	963 Pharmacy Ave.	생명의전화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30 토요오전 9:30 11: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00 성경공부 2:20 금요오후 8: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종욱	주일오후 1:00 토요오후 5: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00 금요오후8: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00 주일오후 4: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임인환	주일오후1: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00 낮12: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00 수요오후 7:30	1183 Davenport Rd.	535-8884 마음의양식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30 예배 3:00 주일학교 3: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韓一銀,1회 4安打 4득점

실업야구 第一銀꺾고 首位진출 5—2



◇거뜬히 홈인 第一銀1회말 1死후 공격에서 3번 金宇烈이 좌익수앞 2루타를 날리자 포볼로나가 2盜했던 1번 羅昌起가 홈으로 뛰어들며 1점을 올리고있다.

韓一銀行이 第一銀行을 꺾고 실업야구 후기1차리그서 단독선두에나섰다. 29일 서울운동장서 진행된 대회7일째 경기에서 韓一銀은 第一의 선발 盧相守의 컨트롤이 잡히지 않은 틈을 타 맹공, 李碩揆의 좌월 3점홈런을 포함한 4안타를 집중 4득점, 5—2로 第一銀을 꺾고 3승1패를 기록, 3승1무1패의 經理團을 제치고 단독선두에 나섰다. 롯데와 韓國化粧品의 대전서는 6—6으로 비겼다.

打力되살아난 韓國化 맹공 底力의 롯데와 亂打戰 6-6

韓國化粧品의 유격수 金長根은 롯데의 7회초 4번 鄭鉉發의 내야땅볼을 잡아 1루 송구를 서두르다 빠뜨려 1점을 내줘 승기를 놓치고 비겼다.

이날 韓一과 第一의 대전서 1회초 韓一은 1死후 2번 朴庸成이 좌중간 2루타로 나간후 3번 風龍得이 4구를 골라 1,2루가된후 4번 金容哲의 좌전안타로 1점을 선취한후 5번 李碩揆가 왼쪽 펜스를 넘기는 3점 호머를 날려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第一도 1회말 1번 羅昌起가 포볼로나가 2盜한후 3번 金宇烈의 좌전안타로 1점을 만회한후 5회말 柳世鐘의 중월 솔로호머로 추격을 벌였으나 韓一은 8회초 許哲九의 좌월 솔로호머로 第一의 추격에 쐐기를 박았다.

한편 롯데와 化粧品의대전서 양팀은 1회에 2안타로 2득점, 2—2타이를 이룬후 化粧品은 4회말 4안타를 집중, 3점을 추가, 5—2로 앞섰으나 롯데는 5회초 [illegible] 6회말 化粧品은 좌전안타로 나가 2盜한 1번鄭丘를 [illegible] 우전안타로 불러들여 6—5로 앞섰다.

◇제7일전적

롯데 (2승1무1패)	200 021 100	—6
한국화장품 (1승1무2패)	200 301 000	—6
한일은 (3승1패)	400 000 010	—5
제일은 (1승1무2패)	100 010 000	—2

▲홈런=李碩揆(1회초·3점) 許哲九(8회초·이상 한일) 柳世鐘(5회말·제일)

◇제6일전적

한전 (1승3패)	000 200 000	—2
롯데 (2승1패)	320 100 00×	—6
경리단 (3승1무1패)	000 010 010	—2
포철 (1승1무1패)	002 000 000	—2

▲홈런=孫祥鋒(3회·2점·포철)

金潤植씨선임 實業排球聯전무

실업배구연맹은 27일 이사회에서 전무이사에 金潤植 綜合化學감독을 선임했다. 石泰俊(湖南精油감독) 전전무는 일신상 사정으로 사표를 제출, 수리됐다. 이에따라 실업연맹은 상임이사진도 새로 구성할 계획이다.

昌信工 朴良夏 해트트릭

慶南工 5대0大破 3회전에

고교축구

昌信工(馬山)은 29일 효창운동장서 벌어진 제14회 대통령금배쟁탈 전국고교 축구대회 5일째 2회전서 주장 朴良夏의 눈부신 활약으로 慶南工을 5—0으로 대파, 徽新高, 啓聖高, 中東高와함께 16강이 겨루는 3회전에 올랐다. 朴良夏(19·173㎝)는 전반36분 선제골을 터뜨린뒤 후반7분 페널티킥으로 추가점을 올리고 29분에 또 한골을 넣어 해트트릭을 기록했으며, 金弘運과 鄭炳文의 득점을 어시스트, 昌信工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면서 이대회 스타 플레이어로 등장했다. 昌信工은 두게임을통해 13득점을 기록했다.

徽新·啓聖、群山第一·宇信제압

徽新高는 權宰煥, 權宰鉉 형제선수의 활약으로 1·2년생으로 주축을 이룬 群山第一을 3—0으로 물리쳤으며 啓聖高는 金重基, 李洙權, 朴喜元의 득점골을묶어 宇信高에 3—0으로 완승했다.

한편 28일 대회4일째 2회전에서 팀창단 6개월의 利川農은 작년도 우승팀 大田商과맞서 1—1로 비기고 승부킥서 7—6으로 이겨 대회개막이래 가장큰 이변을일으키고 3회전에 도약했다. 利川農은 전반26분 大田商 田鎰西에게 골을 빼앗겼으나 경기종료 6분전에 金漢龍이 동점골을넣고 승부킥서 전세를 뒤집었다.

◇제5일전적 ▲2회전

경신고 3 (1—0 2—0) 0 군산제일고
계성고 3 (2—0 1—0) 0 우신고

◇제4일전적(28일) ▲2회전

창신공고 5 (1—0 4—0) 0 경남공고
중동고 1 (1—0 0—0) 0 고양고
중앙 3—0 성도
이천농 1—1 대전상 〈승부킥 7—6〉
숭의실 0—0 동래 〈승부킥 4—3〉
풍생 2—1 대구공
신흥실 1—0 영남상

女子농구代表 出國 존즈컵대회出戰

오는7월1일부터 14일까지 自由中國 臺北에서 열리는 제5회 존즈컵쟁탈 국제여자농구대회에 출전할 韓國대표팀 18명(임원4, 선수14)이 29일 하오6시20분 CAL편으로 출국했다.

이 대회에는 韓國을 비롯 13개국 14팀이 참가, 예선및 결승리그로 우승팀을가린다.

◇선수단 ▲단장=金桂東 ▲감독=申東坡 ▲코치=趙勝延 ▲국제심판=梁文義 ▲선수=鄭美羅 桂全美愛 車良淑 朴鎭淑 金和順 朴贊淑 金福順 金英姬 洪英順 洪惠蘭 方信實 朴良 權明嬉 禹恩京

百92校 千여명 出戰

中高육상 開幕

朴貞信 百10m 허들 男高최고기록

제10회 전국 중고대항 육상경기가 192개교에서 1천7명의 선수가 출전한가운데 29일 서울운동장서 개막되었다.

첫날 남고 1백10m 허들에서 裡里工高의 朴貞信은 14초7을 기록, 종전 14초8을 0·1초 단축하는 고교최고기록을 수립했다. 또한 남중 투포환서 安관영(관양중)은 16m10을 던졌고 여중 4백m에서 金美淑(고려중)은 58초7을 기록, 각각 중학 최고기록을 작성했다.

한편 여고 1백m에서 全貞植(충주여고)이 11초9로 1위를 차지했고 남고 3단뛰기에서 朴영준(경북체고)이 14m61로 호기록을 보였다.

初中육상선수에 技術지도 體育會 방학중 64명 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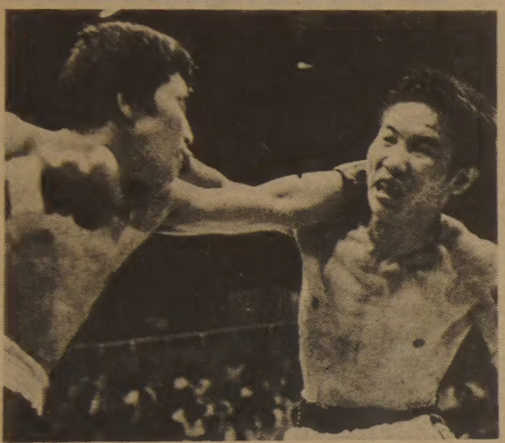
體育會는 기본종목인 육상경기의 어린선수들을 방학중 泰陵선수촌에 모아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올해 제1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육상경기종목에서 6위까지 입상한 선수64명(남31, 여33)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지도는 단거리, 중거리, 도약, 투척등 4개부분으로 구분된다.

참가자들은 오는 8월8일까지 선수촌에 들어가 9일 체력검사를 받은뒤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육상전문가들의 지도를 받게된다.

「優秀선수」에 웰터級朴在容

新人王戰 10체급 王者 가려내



◇밴텀급 결승전서 權鐵㊧과 李敬玉이 격전을 벌이고있다. 權이 판정승, 장려상을 받았다.

◆…81년도 신인왕전(前期) 10체급 결승전이 28일 저녁 문화체육관서열려 영예의 前期신인왕을 뽑았다.

웰터급 신인왕 朴在容(남부)은 가장 뛰어난기량을 발휘, 우수선수로 뽑혀 30만원의 격려금을, 權鐵(상원·밴텀급)과 金永鎬(한국화·라이트급)은 각각 장려신인상(10만원)을 받았다.

후기 신인왕전은 오는12월 개최되며 82년2월각체급 전후기 챔피언들이 全韓國 신인왕 타이틀을 걸고 대결하게 된다.

2천여 관중이 열광한 가운데 벌어진 웰터급결승서 朴在容은 全海一(원준)의 안면을 강타, 1라운드서 3번의 녹다운을 뺏고 1분47초만에 통쾌한 KO승을 거두었으며 밴텀급 결승전서는 權鐵(상원)과 李敬玉(극동)이 치열한 접전을 벌인끝에 權에게 신인왕타이틀이 돌아갔다.

◇결승전적

▲주니어플라이급 池末五(원규) 판정 金龍采(동아)
▲플라이급 林李植(한강) 판정 金鍾太(원진)
▲주니어밴텀급 裵孝鎭(동근) 판정 姜珉洙(와룡)
▲밴텀급 權鐵(상원) 판정 李敬玉(극동)
▲주니어페더급 梁承敦(덕성) 판정 金先鎭(대호)
▲페더급 柳誠鉉(원규) 판정 崔完澤(원규)
▲주니어라이트급 金載源(청우) 2회KO 金星煥(상원)
▲라이트급 金永鎬(한국화) 4회KO 李惠宰(동아)
▲웰터급 朴在容(남부) 1회KO 全海一(원준)
▲미들급 金景淳(봉화) 4회KO 李致漢(덕성)

프로복싱

金喆鎬 2차방어전 相對젠슨선수 多彩로운 技巧구사

◆…WBC수퍼·플라이급챔피언 金喆鎬의 2차방어전(7월29일·釜山예정) 지명도전자로 알려진 윌리·젠슨(26·미국)이 만만치않은선수로밝혀졌다.

국내권투 관계자들은 최근 AFKN·TV에서 방영한 젠슨-로드리게스전의 경기를보고 젠슨을 다채로운기술과 빠른발을 갖춘훌륭한선수로 평가했다.

26승(10KO) 2무1패의 전적을보이고있는 윌리·젠슨은 連打능력과 공격의 적극성이부족하지만 잽이날카롭고 푸트웍이 기민하여 金이 타이틀을 지키기위해서는 치밀한 작전을 세워 훈련해야한다고 입을모았다. 【契】

1개월延期…9월중 열려

WBA J밴텀級타이틀決定戰

◆…黃鐵哲과 구스타보·바야스(아르헨티나)간의 WBA 주니어 밴텀급 타이틀결정전은 당초 개최예정시기로 발표됐던 8월8일에서 1개월 연기, 9월에 열린다고 WBA 집행위원회의(美國휴스턴)에 참석한 한국권투위원회(KBC) 梁正圭회장이 알려왔다.

양측에서는 이번 타이틀 결정전을 서로 自國에 끌어들이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경기가 어디서 열릴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프라이어防禦 2회에KO로

WBA J웰터級

【라스베이가스28日AP=聯】WBA(세계권투협회)주니어 웰터급 챔피언 아론·프라이어(미국)는 28일낮(한국시간) 美國라스베이가스에서 벌어진 타이틀 2차방어전에서 동급 1위의 도전자 레녹스·블랙모어(가이아나)를 세번 녹다운시키고 2회 58초만에 KO승, 28승(26KO)무패 20연속KO승의 훌륭한 기록을 유지했다.

◇制空權 쟁탈 啓聖高-宇信高대전. 미드필드서 啓聖權弘秀㊧와 宇信공격수들이 공중볼을 빼앗기위해 점프하고있다.

美、長打力과시

大學선발에 17安打 13—8

AIA訪韓야구

美國 대학생선교야구단(AIA)은 28일 서울운동장서 열린 韓·美친선야구 2차전 대학선발팀과의 대전서 17안타를 퍼부어 13—8로 대승, 2연승했다.

대학선발은 1회말 李高洙의 3점 호머로 기선을 잡았으나 2, 3회에 4실점, 4—3으로 뒤졌다. 4회말 金成漢의호머로 4—4타이를 이루었으나 재일의 호투를 뒤집지는 못했다.

대학 선발은 마운드가 불안, 투수를 자주교체했고 3회에 등판한 楊相汶이 AIA 2번 피어슨에게 만루호머를 맞는등 5점을 허용하고 13—8로 패했다.

◇2차전

AIA	022 005 310	—13
대학 선발	300 101 030	—8

▲홈런=李高洙(1회말·3점) 金城漢(4회말·이상 대학선발) 피어슨(6회·만루·AIA)

보리·매켄로 準準決진출

윔블던·테니스

【윔블던28日AP=聯】윔블던 6연패의 경이적기록에 도전하고있는 스웨덴의 테니스 鬼才 비외른·보리는 27일 남자단식 예선 4회전에서 美國의 호적수 비타스·게룰라이티스를 세트마다 치열한접전끝에 3대0(7—6, 7—5, 7—6)으로 누르고 8강이겨루는 준준결승에 올랐으며 지난대회 준우승자이자 보리의 최대강적인 美國의 존·매켄로도 같은 美國의 노장 스탠·스미드를 3대1(7—5, 3—6, 6—1, 6—2)로 꺾고 8강에 합류했다.

또한 재기를 노리는 美國의 지미·코너즈도 이날 폴란드의 다크호스 우즈베크·피바크를 3대0(6—3, 6—2, 6—4)으로 가볍게 눌렀으며 濠洲의 피터·맥나마라, 로드·프롤리 印度의 비제이·암리트제이 美國의 샌디·메이어 아프리카의 요한·키에트크등 모두8명의 준준결승진출자가 결정됐다.

金承煥 3連覇

大障碍 飛越서

국가대표 金承煥(延世大)은 28일 마사공원에서 막을내린 81년도 춘계전국학생승마대회 최종일 대장애비월경기에서 감점4로 우승, 3연패를 이룩했다.

또 마장마술 A급경기에서는 崔永泰(서울승마구락부)가 89·25점으로 1위를차지, 2년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성적 ▲대장애물비월경기=①金承煥(延世大) 감점4 ▲중장애물비월경기A급=①朴李弘(光州高) 감점8·5 ▲동B급=①林光喆(光州高) 감점0

8寸兄부부 殺害 논에 물안대주자

【全州=聯】高敞경찰서는 28일 자기논에 물을 대주지않은데 앙심을 품고 8촌형 부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朴연전씨(43·高敞郡上下面石南里)를 살인혐의로 구속했다.

船上서 자다失踪

【木浦=聯】지난24일 새벽 3~6시사이 전남新安郡荏子面허사도 서남방 2마일해상에서 새우잡이하던 제3조일호(선장 柳彩銀·19톤)선원 白永一씨(22)가 실종됐음이 28일 뒤늦게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선장 柳씨에 따르면 지난 23일밤 柳씨등 선원3명이 선실에서, 실종된 白씨는 혼자 배위에서 잠을 잤는데 이날새벽 6시께 새우잡이 그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장柳씨등이 배위에 올라가보니 白씨가 안보이더라는것이다.

경찰은 늦게 귀항한 柳씨의 이같은 신고에 따라 柳씨등 선원들을 중심으로 정확한실종경위를 조사하고있다.

身病·생활고비관 7旬노부부 자살

【水原=聯】외동아들집에다니러갔던 칠순 노부부가 신병과 생활고를 비관, 농약을 먹고 함께 자살했다.

28일밤10시께 水原市池洞195 朴春培씨(51·농업)집 안방에서 朴씨의 노부모 朴현영씨(70·경기도 坡州郡汶山邑汶山里80)와 黃山玉씨(71)가『신경통으로 고생이 심하고 살기도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채 농약을 먹고 나란히 숨져 있는것을 외아들인 집주인 朴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都市계획 확정후 12년째 방치

【安東=聯】安東市가 지난69년 건설부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을 확정해놓고도 12년이 지나도록 예산상의 이유로 도시계획을 시행하지않아 많은 가옥들이 도시계획선에 걸려 소유권행사를 못하고있다.

市가 확정한 도시계획중 현재까지 시행되지않고있는 지역은 雲上洞을 비롯 北門, 廣石, 沃野, 南門, 三山洞등 주택밀집 지역으로 지난69년 도로개설 계획선만 그어놓은채 지금까지 12년째 그대로 두고있다.

가옥이 도로계획선에 걸려 철거대상이 되고있는 三山洞 주민 金모씨(50)는『도시계획선에 묶여 12년째 가옥을 개·보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예산의 뒷받침이 안돼 손을 대지 못하고있다』고 밝혔다.

輸入절차 간소화 來1일부터 실시

상공부는 오는7월1일부터 새수출입期別公告(81년하반기~82년상반기)가 시행됨에따라 이에따른 수입행정절차를 대폭간소화하기로했다.

상공부가 1일부터 시행하기위해 공고한 「期別公告」에 따르면 ①현재 별도공고(령)에 따른 별도공고및 수입추천요령을 통해 수입추천품목, 기계류부품, 中古품목등 부문별로 세분하여 10개항목으로 수출입추천요령을 공고하던것을 앞으로는 각종별로 공고요령을 통폐합하여 한번에 통합공고토록하고 ②수입자제한을 현재의 27개에서 19개로 축소했으며 ③구비서류도 대폭간소화, 평균3·7종에서 3종으로 축소함과아울러 처리기간도 2、3일에서 1、9일로 단축토록했다.

姜玟昌 道警局長 大邱市警局長겸임

치안본부는 29일 경북도경국장 姜玟昌 경무관이 오는 7월1일자로 신설되는 大邱직할시경국장도 겸임토록 발령했다.

流星의 洞賊 <118>

李炳注作 李友範畵

亡兆의 日月 ④

드디어 이이는 무슨 방책을 강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우의정 노수신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심의겸과 김효원은 둘다 학문하는 선비들이니 흑백을 가릴 수도 없고 정사(正邪)를 나눌 수도 없소. 서로 틈이 생겨 반목하고 있는 것이지만 철천지 원한이 있어 그러한 것도 아니고 다만 말이 많아 조정을 시끄럽게 하고 있을 뿐이니 차제에 그 두 사람을 외직(外職)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떠하올지요. 그러니 대신께서 경연에서 그 사유를 말씀하셔야 하겠소』

『만일 경연에서 그런 말을 하면 더욱 소란하게 될 것이 아니겠소』

하고 노수신이 주저했다.

그런데 얼마 안가 사간원에서 김효원의 심복인 이조(吏曹)를 탄핵하여 파직시킨 일이 있었다. 노수신은 심의겸의 세력이 성해질까 겁을 내어 임금께 아뢰었다.

『근일 심의겸, 김효원 두사람이 서로 헐뜯어 조정이 시끄럽사옵고 선비들이 불안하게 여기고 있사온즉 차제에 그두사람을 외직으로 내보내심이 어떠하오리까』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것은 무슨 까닭으로서인가』

선조가 물었다.

『서로 지난 날의 허물을 탓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노수신의 대답이었다.

『한 조정에 있는 선비로서 마땅히 화합해야한 터인데 서로 헐뜯는다고하니 옳지못하구나. 두사람을 외직으로 보내도록 하리다』

하고 선조는 얼굴을 찌푸렸다.

이이의 말이 있었다.

『두 사람이 싸운대서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인심이 경망하고 조급하여 두 사람의 친척과 벗들이 제각기 말을 보태어 시끄럽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신이 아뢰온 것은 두 사람을 외직으로 보내면 말썽의 화근을 없애는 것으로 되지 않을까 함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홍문관 정자 김수(金睟)가 말을 끼었다.

『이제 전하께서도 그런 사실을 아셨으니 그것을 또한 그들이 알게 된다면 근신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주는 쓸만 하옵니다. 꼭 외직으로 보내지 않아도 저절로 풀려 서로 화합하게 될 것입니다』

승지 이헌국(李憲國)도

『전하께서 친히 두 사람을 불러 가슴 속에 맺힌 것을 모두 풀게한다면 같이 조정에 두어도 무방할 줄 압니다』

하고 그들을 외직으로 보내는 것을 은근히 반대했다.

그러나 선조도 마음 속에 다진 바 있는 모양으로 응답을 하지 않더니 수일 후 단이 내렸다.

『이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 조정이 평온할 수 없겠다』

는 말과 함께 김효원에게 경흥부사(慶興府使)를 제수했다. 동시에 심의겸을 개성유수(開城留守)에 임명했다.

이조판서 정대년(鄭大年), 병조판서 김귀영(金貴榮)이 경흥은 오지(奧地)이며 호인(胡人)과 접근하여 있으므로 서생(書生)으로선 다스릴 수 있을 곳이 못된다고 전의하여 부령(富寧)으로 김효원을 보내도록 결정했다.

종교서관
535—1929
[illegible]
●성가집·성교테이프
●각종선물, 등등.
[illegible]
[illegible] 오후7시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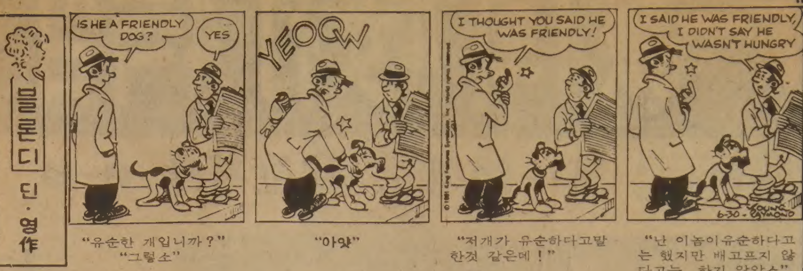
북미최대의한국식당
한식·중화요리·화식·케네디안식
거구장

거구장

※환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대소연화
영업시간 :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가수와밴드 : 목, 금 토, 일(8시30분부터 밤2시)
가 수 : 신 현 희

특 별 메 뉴
개스불로 굽는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명게 생선회
한식·중화요리·케네디안식
요리전문
2백대 수용무료파킹장

5 BETHRIDGE RD. ETOBICOKE
KIPLING×HWY 401서·1 블럭 북쪽 첫신호등서 좌회전
☎: 742—1618 곽정렬·김선남



"유순한 개입니까?" "그렇소" "아얏" "저개가 유순하다고말한것 같은데!" "난 이놈이유순하다고는 했지만 배고프지 않다고는 하지 않았소"

김 인 규
RIA
ACCOUNTING
&
TAX
844-0178

뮤지컬 春香傳 日서公演

"東洋人사랑 아름답게 表出"
日극단의 톱탤런트 總出演

◇공연자료수집차 내한한 호리오크극단 대표 須藤圭子여사㊧와 톱탤런트 吉本眞由美양.

우리나라의 古典「春香傳」이 일본에서 뮤지컬化, 무대에 올려진다. 춘향전은 일본에서 10년전 드라마로 공연된적이 있지만 뮤지컬·드라마로서는 처음이다. 일본의 대표적극단「호리오크 아카데미」(대표 須藤圭子·64)가「춘향전」이란 타이틀로 오는 9월27일부터 29일까지 오오사까(大阪)의 산께이·홀에서 공연하는 춘향전은 일본작가 竹內伸光각본에 筒井庸助연출로 일본극단의 톱 탤런트들이 총출연한다.

27일 하오 공연자료수집차 내한한 호리오크극단대표 須藤圭子여사는『춘향전은 한국인의 心性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고전일뿐만아니라 동양인 남녀간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출시킨 작품』이라고 밝히고 이를 뮤지컬化하게된 동기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에 감동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함께 내한한 극단관계자들은 須藤여사외에 춘향역을 맡게될 日本TV스타 요시모또·마유미(吉本眞由美·27), 연출가筒井(34), 무대미술가 竹內志朗씨등 6명.

연출을 맡은 筒井씨는『한국의 고전을 무대위에 올리는 만큼 日本式으로 번안해서 공연하는 것보다 한국자료에 충실하게 연출하겠다』고 밝히고 춘향전을 무대위에 올렸던 연극 관계자들과 국립극장 제작진들을만나 많은 조언을 듣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전 영사관에서 鴻世美양이 주연한『춘향전』을 보고왔다는 요시모또양은『한국의 대표적 여인상인 춘향역을 소화해 내기위해 공부할 관계서적이나 음반등을 구입해 가겠다』고 밝혔다.

요시모또양은 현재 NHK의 인기 드라마「이 생명 다하도록」(佛레미제라블을 번안한것)에서 여주인공역을 맡아 최정상급 인기를 누리고있는 톱 탤런트.

이도령역은 한국계 日本롭가수 니시끼노·아끼라, 변사또역은 日本이 자랑하는 만담가(落語家) 쇼후꾸떼이 니가꾸(笑福亭仁鶴)가 맡아 열연한다.

호리오크 아카데미는 34년간 日本의 공연예술계를대표해온 단체. 세계 각나라의 오페라 연극 뮤지컬등을 무대위에 올려왔는데 한국작품 공연은 이번이 처음이다.

호리오크아카데미관계자들은 의상과 무대장치에 필요한 소도구를 구입한후 28일 日本으로 돌아갔다. 【崔成子기자】

문화단신

세계大學총장회의 코스타리카서 開幕

세계대학총장회(IAUP) 제6차회의가 28일부터 중남미 코스타리카 수도 상호세市의 칼리아리호텔에서 열리고있다. 코스타리카정부와 IAUP의 공동주최로「교육을 통한 세계평화」라는 주제로 오는 7월3일까지 열리는 이번회의에는 세계50여개국의 4백여 전·현직 총·학장이 참석하고있다.

현 IAUP회장인 趙永植 경희대재단이사장은 지난22일 출국, 28일의 개막식에서「교육을 통한 세계평화」란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평화대학의 취지를 설명하고 평화구현방안에 대한 결의를 제의했다.

한국에서는 趙박사외에 啓明大 申一熙총장이 이번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5회 오늘의作家賞 시인金光圭씨 뽑혀

季刊「世界의 文學」사 제정 제5회「오늘의 作家賞」수상자로 시인 金光圭씨가 뽑혔다. 수상작은 詩「엘리제를 위하여」등 14편의 作品. 金光圭씨(42)는 詩人이자 수편의 獨文學論文을써낸 獨文學者이기도 하다. 현재 漢陽大 獨文科 교수로 재직중. 상금은 50만원. 수상작은「世界의 文學」여름호에 게재한다.

서예·한문특강실시

대한문화관은 주부 직장여성 청소년등을 대상으로 서예및 한문특강을 7월1일부터 개최한다.

강의내용은 기초한문, 명심보감, 史記, 한시등. 문의 269 4612.

養德硏墨會도 한문, 서예무료특강을 7월 한달동안 인사동 동일빌딩內 同연구실에서 실시한다. 문의 723 9060

張吉山

黃晳暎 作 崔然石 畵 (1601)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61)

깽쇠와 징이 어우러졌다. 안 무당의 춤은 드높은 풍물 소리 가운데 적막하게 시작되는듯이 보였다. 마치 불어오기 시작한 강풍에 나뭇잎만을 떨고섰는 묵직한 노목과도 같았다. 안무당의 춤은 매동작마다 끊겼다. 그리고 발을떼지않고 정지한 사이에 조바심이 쳐질만하면 다시움직였다. 드디어는 뭐과 미끄러짐이 직선과 원형으로 이어지며 규칙적으로변하여 일순 마당 가운데에서 딱 멎었다. 멎은 안 무당의 얼굴로 땀이 비오듯이 흘러 내리는게 보였다. 계화가 중얼거렸다.

『기를 다 쏟으시겠네』

『말려야지』

김승운이 속삭였으나 계화는 장단을 놓치지 않으며 답하였다.

『저건 성님의…마감 판이우』

안 무당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사지에 더욱 힘이 생겨난듯 하였고 마치 장수가 천군을 이끌고 행진하듯 무섭고 위엄에 가득차 있었다. 안 무당의 눈은 위로 흡떠져서 흰창이 드러나 보였으며 입은 아랫 입술을 깨물었다. 휘젓는 팔 다리는 병장기를 쓰듯 하고 가슴은 갑옷을 입은듯 억세게 벌어졌다. 뒷 방에 엎드려 앓던 노파의 어느 곳에서 그런 힘이 솟았는지 알수가 없었다. 안 무당은 경정거리며 몸을솟구쳐뛰었다. 한참이나 온몸을 허공으로 찢어발길 것처럼 뛰더니 다시 몸을풀어 낭창하게 늘어지며 동작의 선이 길쭘해졌고 치마자락을 끌면서 가녁을 돌아 나갔다가 다시흐느적돌아왔다. 몸을 좌우로 흐느적거려서 앞으로 뒤로 넘어갈듯 하다가는 두팔을 올려 만간힘하듯 끌어 올렸다.

『하아아 안』

무엇인가에 눌려서 쓰러질듯 하다가 그것을 부여안고는 일어났다. 일어나서 어깨를 들썩이며 좌중의 원향이에게로 다가들었다. 계화가 원향에게 일러주었다.

『받아, 받아』

원향이 치마를 들치고 가랑이를 벌려 온 몸으로 받는 시늉을 하는데 순간 무엇엔가 맞은듯이 뒤로 벌렁 넘어졌다. 안무당은 그런 동작을 마치자 볕에 녹는 눈더미처럼 아래로 부터 흐느적 무너져 내렸고 대신 원향이가 발을 차며 마당으로 튀쳐 나갔다. 원향이의 방울소리가 앙징맞게 울렸다. 그여자는 부채와 방울을 양손에 갈라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안무당은 삿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서 가냘픈 숨을 몰아쉬는중이었다.

『성님 괜찮우?』

계화가 안무당을 편하게 해주려고 옷고름을 풀어주며 물으니 안 무당은 처녀처럼 배시시 웃었다.

『웅, 나 냉수나 한 대접 갖다주어』

계화가 다시 소곤거렸다.

『성신이 오셨읍디까?』

『그럼 언제나… 오시지』

안 무당은 처음에 모닥불의 위쪽 캄캄한 하늘가로 나직하게 드리워진 허연 장충의 모습을 보았고, 그를 마중나갔던 느낌이 들었다. 그뒤에는 그가 구군복에 환도를 찬 대감의 모습이되어 불꽃과더불어 휩싸여 보이더니 불빛 속에 녹아들어 안 무당의 몸 위로 덮어 씌워졌고, 그 여자는 온몸이 타는 것같았었다. 그리고는 정신이 없다가 몸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간듯하여 쓰러졌던 것이었다. 안 무당은 춤 추고있는 원향이의모습을 흐려진 눈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헌굿과 새굿을 다 마쳤네. 내가 이제 곧 열라국으로 갈거야』

안 무당은 계화가 떠다준 냉수를 달게 마셨다.

주식회사
신의상사
취급품목 ◆담배류 ◆쵸코렛및 캔디류 ◆GROCERY BAG류
116 TYCOS DR. TORONTO
TEL. 781-6669 • 781-6660 • 781-6012
대표 문인식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조 지 섭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풀, 파트타임
☎: 742-0800 미스타 차

파타임 스토아 헬퍼구함 :
빅토리아·팍과 댄포트
☎: 759-7501

베이비 씨터 구합니다.
☎961-6647 미스타 최

밀크 스토아 케쉬어구함 : 풀타임과 파타임
(유경험자 원함) DOWNTOWN지역
☎: 925-0339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362-2300

파타임 남자 헬퍼구함
848 MARKHAM RD.
☎: 438-1528

MONAMI JAPANESS R. : 웨이트레스
(11:2PM)월~금요일. 114 Laird Dr., Leaside
☎: 421-6016(Mr. Masuda) Call after 2PM

COOK(한식과 일식), 웨이트레스 구함
2432 EGLINTON AVE. E.
☎: 759-8512 CHOI'S레스트랑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533-0910 피터

인쇄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실 남자분 구합니다.
☎: 746-0675

웨이트레스 풀타임1명, 파타임 1명
주말에 주방일 도우실분 1명
☎ 532-2727

재봉사 구함 (남·여)
•약간명 •유경험자 •좋은 대우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초저녁 사무실
청소할분 구함
☎: 977-1110

매매및 양도

벡 커 매매
연매상 30만달러
☎: 783-1984

가게매매 : 직접내방원함
그로서리 겸한 버라이어티,
1385 WESTON RD.(제인×웨스턴)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423-7939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주매상 $5000 (Brimortone×Orton Park Dr.)
956 BRIMORTONE DR. SCARB.

영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535-2804

주인이 은퇴상 팔려고 하는 이윤좋은 비즈네스.
에토비코에 쇼핑 멀안에 있음 ASKING $95,000
☎: 233-9866

가게 QUIPPMENT매매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고깃간등
☎: 653-6366 9~5시
292-0332 6시이후 길엔

아이스크림 기게 팝니다 :
☎: 535-7772, 439-8885 (오후6시 이후)

가게매매 :
주매상 $4,200, 살림집포함(4베드룸) 렌트, 리스, 호조건. ☎: 1-579-4451(OSHAWA)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465-4003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325 ST. GEORGE ST.
☎: 924-7696 미스타 리

벡커 프렌차이즈 급매 :
1351 DANFORTH RD.
☎: 267-2647

26인치 칼라TV급매 :
좋은 컨디션
☎: 766-9169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635-1038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 656-7753

스토아 매매 : OPEN WINDOW BAKERY및 그로서리가게
이주관계로 매매, 직접내방 상담요망
1550 BLOOR ST.

SMOKE & GIFT SHOP매매 : 주매상 $6000보장, 리스6년 +5년 옵션 게임수입으로 가게운영비용 일체 지불할 수 있음.
☎: 1-335-8946

가게 렌트
●영·스트릿(새 교외지역)에 있는 아주 좋은지역임
(가게이름 : VALDI DISCOUNT FOOD STORE)
●자본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높은 이윤및 매상이 가능
●전화연락 : MRS. POPP(223-1606)

밀크스토아 매매
주매상 : $6000 이상, 리스5년, 옵션10년
전화번호 : 822-0363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산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249-3914
(CALL ONLY 7:30PM to 10:00PM) ZARINA

OPEN 하우스
토, 일요일 오후1~3시, 평일 오후6~8시
10.5% 몰게지 시작, LANSDOWNE서브웨이 가까운지역
6룸, 2키친, 현 이자율에 비해 4년동안 $2500 세입
가능, ASKING $69,900에 약15000다운
☎: 232-2200 JOHN SCHWEIGEL
RED ROSE R E LTD. REALTOR

메디칼 빌딩안에 있는 커피 SHOP팝니다
5일 반 OPEN ☎: 968-6431(3시이후 연락바람)
499-5217(저녁)

그로서리, 과일과 야채, 마른음식등
식료품을 취급하는 가게 매매
많은 아파트 빌딩으로 둘러 쌓여 있는 좋은
위치에 있으며 크기가 양쪽 1700피트, 짧은 시간에
경영할수 있는 비즈네스.
주매상 $3500 이상 가능, 낮은 렌트, 주인이 이주상
팔고자함.
ASKING $18900(많은 EQUIPMENTS, 쿨러)+스탁.
☎: 425-1255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체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 (구 플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21-0560 여 정 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1)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2)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 나 라 운 수
이삿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미 용

킴 스 미 용 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퍼머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자동차수리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한 방 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431-0102 MR. 박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633 0656(B), 493 7185(R)
정 해 영(핀치×킬)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염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746-0675 박 종 남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 중고매매조율김 수 용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781 0200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 (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466-4304, 469-3341 박 기 홍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기 타

영어개인교수지도함
상세한 문의는
☎: 279-7433 EVENING

사람을 찾음 :
천두섭 딸 천혜경 찾음 76년 왔음, 서울 을지로 5가 창림사 이태희 씨애들 ☎: 1-206-329-5903

한국일보 안내광고란을 이용하세요.

533-2361-4

1025 Dupont St. Tor.